



新羅 9州5小京의 都市構造 研究

The Study for City Structure of Nine-states and five-regional capitals in Silla

황인호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문헌을 통해 본 9주5소경의 정비 과정

III. 신라의 통일기 지방도시 검토

1.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
2. 장방형 구조의 지방도시

IV. 9주5소경의 도시계획

V. 맺음말

국문 요약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지방행정조직을 9주5소경으로 개편하고, 주치와 소경을 왕경의 모습과 닮은 坊制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군사적 측면보다 행정치소로서의 비중이 커진 이유도 있었지만, 통일 제국에 걸맞은 국가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주성과 소경성은 설치시기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면 형태에 따라 방형 도시구조와 장방형 도시구조로 크게 분류될 수 있고, 장방형 구조는 다시 시기별로 구획단위가 3가지로 세분된다. 방형 도시구조로는 금관소경, 청주, 완산주, 남원소경, 사벌주가 있으며, 장방형 도시구조로는 하서주, 수약주, 서원소경, 무진주, 중원소경이 있다. 나머지 도시는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장방형 구조로 추정된다.

방형 구조의 도시 중에는 시가지 중앙부에 남북대로로 추정되기도 한 폭이 좁은 변형구획 1열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남원소경과 사벌주가 대표적이다.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는 왕경 개편을 위한 2단계 도시 정비가 마무리되던 신문왕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1방의 크기가 왕경과 동일한 440×440척(고구려척 5척1보 기준, 156.2m)이다. 전체 규모는 9×9방 또는 10×10방을 기본으로 하나, 청주와 완산주와 같이 도시 부지의 여건에 따라 축소하거나 중심축의 방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장방형 구조는 주로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역에 채용되었고, 비교적 좁은 곳에서도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운영 시기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장방형 구조의 지방도시는 다시 구획단위에 따라 세분되는데, 한 변이 120m 내외의 작은 구획에서 450×350척을 기본단위로 한 도시구조로 발전해 나갔다.

주제어 : 9주5소경, 주성, 소경성, 시가지구획, 도시계획, 방리

I . 머리말

신라의 9주5소경은 中代에 들어 정비되기 시작했지만 삼국을 아우르고 唐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완비되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군사적 측면보다 지방 통치를 위한 행정조직으로서의 비중이 커졌고, 더 이상 전략적 거점을 따라 주치나 소경이 이동하지 않고 안배된 지역 내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였다. 특히 9주5소경의 중심 도시는 구조적으로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王京에 적용된 ‘坊里制’라는 도시계획에 준하여 치소를 포함한 일정한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게 된 것이다.

坊制에 의한 도시 조성이 밝혀진 沙伐州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副都 성격을 띠는 5소경에 국한되지 않고 9주5소경 전체에 폭넓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성과 소경성이 방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비되던 시기는 다름 아닌 수도 왕경의 계획도시화¹⁾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신문왕대이다. 따라서 지방도시의 정비 과정이 왕경의 개편 과정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9주5소경의 도시구조 및 경관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위치 문제, 설치 배경, 지방제도에 관한 문헌사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성이나 소경성의 도시구조에 관한 고고학적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도시유적이 일부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고고자료가 부족하여 실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원경(張俊植 1998), 서원소경(車勇杰 2001, 라경준 2000), 사벌주(박달석 2011), 복원소경(이재환 2012) 등에 관한 개별적 연구가 일부 있었다. 한편 朴泰祐(1987), 李京贊(2002), 山田隆文(2008)는 성곽 등 관련 유적의 배치 양상뿐만 아니라 고지도에 남아 있는 격자형 시가지구획의 흔적에 주목하여 도시구조를 유형별로 복원하였다.

도시계획의 적용 범위를 사벌주, 청주(靑州), 남원소경으로 한정짓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14개 지방도시 전체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또한 주성과 소경성이 독립적인 산성 또는 나성 구조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분지형 평지에 조성된 계획도시 그 자체 또는 궁에 해당하는 치소의 경계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1) 신라 왕경을 비롯하여 백제 사비도성, 고구려 장안성이 6세기 대부터 왕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계획도시가 부속된 형태로 발전해나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는 6세기 중엽부터 월성 주변을 시작으로 8세기 초 외곽까지 단계별로 왕경 6부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황인호 2009·2010 참조).

러한 문제를 발굴 자료를 기초로 검토하고자 하며, 9주5소경의 도시구조를 분석하여 왕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고대 지방도시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헌을 통해 본 9주5소경의 정비 과정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고신라 및 옛 가야지역에 沙伐州(尙州)·歆良州(良州)·菁州(康州), 옛 백제지역에 熊川州(熊州)·完山州(全州)·武珍州(武州), 옛 고구려 남쪽 경계지역에 漢山州(漢州)·首若州(朔州)·河西州(溟州) 등 9주를 두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표 1]과 같이 경덕왕 16년(757)에는 그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꾸고 9주 아래에 5소경, 117군, 293현을 두었다.²⁾

[표 1] 신라 9주5소경

九州 (757년 改名)	州 治	領 屬		
		小 京	郡	縣
沙伐州(尙州)	경북 상주	-	10	30
歆良州(良州)	경남 양산	金官(경남 김해)	12	34
菁州(康州)	경남 진주	-	11	27
漢山州(漢州)	경기 광주	中原(충북 충주)	27	46
首若州(朔州)	강원 춘천	北原(강원 원주)	11	27
河西州(溟州)	강원 강릉	-	9	25
熊川州(熊州)	충남 공주	西原(충북 청주)	13	29
完山州(全州)	전북 전주	南原(전북 남원)	10	31
武珍州(武州)	전남 광주	-	14	44
9州		5小京	117郡	293縣

9주5소경은 西原小京·南原小京 설치(685) 및 沙伐州의 재설치(687)를 끝으로 완비되었으나, 그 시초는 悉直州(505)와 阿尸村小京(514)에서 비롯되었다. 통일 이

2)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始與高句麗百濟地錯犬牙 或相和親 或相寇鈔 後與大唐侵滅二邦 平其土地 遂置九州 本國界內置三州 王城北當唐恩浦路口尙州 王城南曰良州 西曰康州 於故百濟國界置三州 百濟故城北熊津口曰熊州 次西南曰全州 次南曰武州 於故高句麗南界置三州 從西第一曰漢州 次東曰朔州 又次東曰溟州 九州所管郡縣無慮四百五十」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16年, 「冬十二月 改沙伐州爲尙州 領州一郡十縣三十 歆良州爲良州 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四 菁州爲康州 領州一郡十一縣二十七 漢山州爲漢州 領州一小京一郡二十七縣四十六 首若州爲朔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一縣二十七 熊川州爲熊州 領州一小京一郡十三縣二十九 河西州爲溟州 領州一郡九縣二十五 完山州爲全州 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 武珍州爲武州 領州一郡十四縣四十四」

진의 주와 소경은 영토 확장에 따른 전략적 거점 지역과 배후 지원을 위한 교통의 요지에 단기간 운영되었다. 반면 통일 이후의 9주5소경은 지역 안배를 통한 지방 통치의 중심지로서 존속하였고, 소경은 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수행하였다.

신라의 지방제도가 9주5소경을 중심으로 한 郡縣制로 정비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주와 소경의 설치시기 및 편제과정에서의 상황 역시 동일하지 않았다. 이것이 中代 이후 州治와 소경의 입지 선정 및 도시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문헌기록에 보이는 9주5소경의 정비 과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본토와 옛 가야지역에는 사벌주(687), 삼량주(665), 청주(685)가 설치되고, 삼량주에는 별도로 金官小京(680)이 배치되었다. 사벌주는 법흥왕 12년(525)에 당시 소백산맥 이남의 군사거점지역이었던 현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 처음 설치되었다.³⁾ 上州停⁴⁾이 설치된 진흥왕 13년(552) 이후에는 현 경상북도 일대를 관할하는 광역의 지방 통치단위인 上州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이후 상주의 주치는 대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벌주에서 甘文州(김천 개령, 557)⁶⁾를 거쳐 一善州(구미 선산, 614)⁷⁾로 이동되었다. 통일 이후 신문왕 7년(687)에 9주의 하나로 다시 사벌주(현 상주시)가 복치되면서 상주는 폐지되었고, 이때 둘레 1,109보의 沙伐州城이 축성되었다.⁸⁾

삼량주는 문무왕 5년(665)에 상주와 下州의 관할지역을 나누어 새로 설정되었고, 신문왕 7년(687)에는 현 양산시 일대의 주치에 둘레 1,260보의 敵良州城이 축

3) 春二月 以大阿滄伊登爲沙伐州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법흥왕 12년), 法興王十一(二?)年 梁普通六年 初置軍主爲上州(『三國史記』 잡지3 지리1 尙州).

4)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三國史記』 잡지9 직관 하 무관 六停).

5) 진흥왕 22년(561)에 건립된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에는 大等과 軍主·幢主·道使, 外村主 등 진흥왕의 창녕 행차와 관련된 신하들을 열거한 隨駕인명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에는 比子伐·漢城·碑利城·甘文軍主 등 四方軍主와 더불어, 광역 단위의 上州, 下州의 통치에 관여한 行使大等の 존재가 확인된다. 이는 기존의 군사적 거점지배에서 광역 주 단위의 지방통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上州停의 설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주정은 상주라는 새로 도입된 광역의 주와 기존의 지방과건군단인 停이 결합된 것으로, 정 소재지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의 정치적 중심지인 주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한다(주보돈 1998:104~105·109).

6)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滄起宗爲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

7) 春二月 廢沙伐州(甘文州?) 置一善州 以一吉滄日夫爲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평왕 36년).

8) 三月 罷一善州 復置沙伐州 以波珍滄官長爲總管·秋 築沙伐·敵良二州城(『三國史記』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神文王七年 唐垂拱三年 復置 築城周一千一百九步(『三國史記』 잡지3 지리1 尙州).

성되었다.⁹⁾ 진흥왕 16년(555)에 比斯伐(창녕)을 중심으로 현 경상남도 일대를 관할하는 하주¹⁰⁾가 설정되었고¹¹⁾, 하주의 주치는 비사벌주에서 大耶州(합천, 565)¹²⁾, 押督州(경산, 642)¹³⁾, 다시 대야주(661)¹⁴⁾로 이동되었다가, 665년 삼량주(양산)가 신설될 무렵 居列州(진주)로 옮겨지면서 하주의 범위는 축소, 조정되었다. 靑州는 신문왕 5년(685)에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현 진주시 일대에 신설되었는데¹⁵⁾, 이때 거열주(또는 居陀州)를 중심으로 한 하주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9주 중 영남지방에 편성된 3개 주는 6세기 중엽에 설정된 광역주인 상주와 하주의 중심지 변천과 관련되어 있다. 사벌주는 최종적으로 반경 30km 범위 내에 사벌·감문·일선지역이 포함된 현 상주시에 주치를 두어 교통의 요충지자 기준 上州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살렸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초창기 사벌주 치소(사벌면)가 아닌 王京과 유사한 분지형 입지 조건을 갖춘 현 상주시 중심부에 새로이 주치를 설치한 점에서 도시계획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삼량주와 청주는 하주의 주치 置廢 과정과 관련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지역에 신설된 경우로 도시계획상 별다른 제약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삼량주는 통일전쟁 기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 지역 안배와 더불어 전략적 측면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량주는 9주가 완비될 무렵 추가적인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관소경은 문무왕 20년(680)에 옛 가야영역 중 해상교통이 용이한 김해지역에 설치되었는데¹⁶⁾, 삼량주와 근거리에 위치하며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옛 고구려의 남쪽 경계지역에는 한산주(664), 수약주(673), 하서주(658)

9)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靑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因之 (『三國史記』 잡지3 지리1 良州).

10) 신라가 창녕지역의 非火가야를 병합한 뒤 진흥왕 16년에 比斯伐州를 설치하고 下州(停)를 운영한 사실은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 비사벌과 관련된 比子伐軍主, 比子伐停助人, 下州行使大等を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흥왕 16년·26년조의 完山州는 하주 또는 비사벌주의 오기이다. 또한 신문왕 5년조의 완산주 復置 기사는 실제 진주지역에 완산주를 처음 설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1) 火王郡 本比自火郡(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 置州名下州(『三國史記』 잡지3 지리1 良州).

12) 廢完山州(下州의 誤) 置大耶州(『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26년).

13) 拜庚信爲押梁州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

14) 移押督州於大耶 以阿滄宗貞爲都督(『三國史記』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15) 挺居列州以置靑州 始備九州 以大阿滄福世爲總管(『三國史記』 신라본기8 신문왕 5년), 神文王五年 唐垂拱元年 分居隴州置靑州 景德王改名 今靑州(『三國史記』 잡지3 지리1 康州).

16) 加耶郡置金官小京(『三國史記』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金海小京·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三國史記』 잡지3 지리1 良州).

가 설치되었고, 한산주에는 中原小京, 수약주에는 北原小京(678)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한산주¹⁷⁾는 진흥왕 14년(553)의 新州¹⁸⁾ 설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주는 상주, 하주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현 경기도 광주에 주치를 두어 한강유역을 관할하였다. 이후 北漢山州(557)¹⁹⁾로 바꾸었다가 南川州(이천, 568)²⁰⁾, 다시 북한산주(604)²¹⁾로 주치가 변동하였다. 문무왕 12년(672)에는 한산주 晝長城이 둘레 4,360보 규모로 축성되었다.²²⁾

수약주는 상주, 신주, 하주에 이어 진흥왕 17년(556)에 설치된 比列忽州²³⁾로부터 비롯되었다. 비열홀주는 현 함경남도 안변지방에 주치를 두었다가, 達忽州(고성, 568), 牛首州(춘천, 637), 비열홀주(668), 수약주(춘천, 673)로 주치의 변동이 있었다.²⁴⁾ 최종적으로 춘천지역에 다시 수약주가 설치되던 문무왕 13년에는 走壤城이 축성되기도 하였다. 하서주는 何瑟羅州라고도 하며 본래 고구려의 河西良郡이었던 강릉지역에 설치되었다. 그 시기는 실직주(삼척, 505)²⁵⁾에서 하슬라주(512)²⁶⁾로 이사부를 군주로 한 군단의 이동이 있던 6세기 초이다. 선덕왕 8년(639)에는 하슬라주를 北小京으로 삼았다가²⁷⁾, 무열왕 5년(658)에 말갈의 위협을 이유로 들어 다시 하슬라주로 바꾸었다.²⁸⁾

중원소경은 진흥왕 18년(557)에 충주지역에 설치된 국원소경을 계승하였다. 국원소경 단계에는 신라 중고기의 대규모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조성된 가금면 일대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가, 둘레 2,592보의 국원성(673)이 축성된 7세기 후반에 현

17) '漢山州'란 명칭은 문무왕 4년(664)에 아찬 軍官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는 기록에 처음 나타나지만(『三國史記』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실제로는 신주에서 비롯된 북한산주가 한산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 사방군주의 하나인 漢城軍主가 보이는데 한성 또한 한산을 의미한다.

18)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滄武力爲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19) 廢新州 置北漢山州(『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

20) 廢北漢山州 置南川州(『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29년).

21)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평왕 26년).

22) 築漢山州晝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三國史記』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23) 秋七月 置比列忽州 以沙滄成宗爲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17년).

24)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29년), 置比列忽州 仍命波珍滄龍文爲總管(『三國史記』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一云 文武王十三年 唐咸亨四年 置首若州)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州(『三國史記』 잡지4 지리2 朔州).

25)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三國史記』 신라본기4 지증왕 6년).

26) 伊滄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三國史記』 신라본기4 지증왕 13년).

27)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滄眞珠鎮之(『三國史記』 신라본기5 善德王 8년).

28) 王以何瑟羅地連鞞鞫 人不能安 罷京爲州 置都督以鎮之 又以悉直爲北鎮(『三國史記』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5년).

충주시내를 중심으로 중원소경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²⁹⁾ 북원소경은 통일 이후 문무왕 18년(678)에 5소경의 하나로서 새롭게 현 원주시에 설치되었고, 신문왕 5년(585)에는 둘레 1,031보의 소경성이 축성되었다.³⁰⁾

이와 같이 중부지역에 편성된 3개 주, 2소경 가운데 새로운 지역에 신설된 경우는 북원소경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6세기부터 운영되어온 주치나 소경의 기존 터전을 활용하여 9주5소경의 개편에 맞춰 정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반과 교통 요지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랐거나 이를 보완할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변을 전략적으로 개발한 국원소경 단계와 달리, 통일 이후 충주분지에 중원소경을 운영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옛 백제지역에는 웅천주(686), 완산주(685), 무진주(686)가 설치되고, 웅천주에는 서원소경(685), 완산주에는 남원소경(685)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신문왕 5년(685)과 6년(686)에 백제권역이었던 호남과 호서지방에 3개 주와 2소경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³¹⁾, 동왕 9년(689)과 11년(691)에는 西原京城과 南原城이 각각 축성되었다.³²⁾

웅천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지금의 공주시 일대로, 백제 멸망 후에는 당이 그 故地 지배를 위해 사비도성의 부소산성 내에 설치한 웅진도독부(김주성 2012:152, 박순발 2013:26)의 관리 하에 있었다. 웅천주를 비롯하여 완산주(현 전주), 무진주(현 광주광역시), 서원소경(현 청주시), 남원소경(현 남원시) 모두 나당전쟁 후 비로소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 있어 기존 거점지역을 적극 활용한 다른 권역과 달리, 백제 유민의 효율적 통제를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왕경의 본격적인 도시 정비와 맞물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마무리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주치나 소경의 건설에 있어 도시계획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9) 以國原爲小京(『三國史記』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 築國原城(『三國史記』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三國史記』 잡지4 지리2 漢州).

30) 置北原小京 以大阿滄吳起守之(『三國史記』 신라본기7 문무왕 18년), 北原京 本高句麗平原郡 文武王置北原小京 神文王五年 築城 周一千三十一步 景德王因之 今原州(『三國史記』 잡지4 지리2 朔州).

31) 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三月 置西原小京 以阿滄元泰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三國史記』 신라본기8 신문왕 5년), 以泗泚州爲郡 熊川郡爲州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同 신문왕 6년).

32) 築西原京城(『三國史記』 신라본기8 신문왕 9년), 築南原城(同 신문왕 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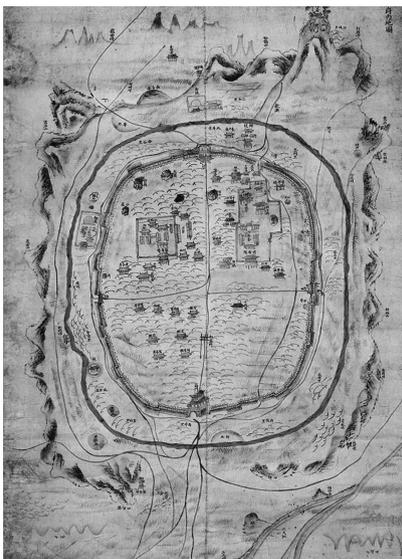
Ⅲ. 신라의 통일기 지방도시 검토

1.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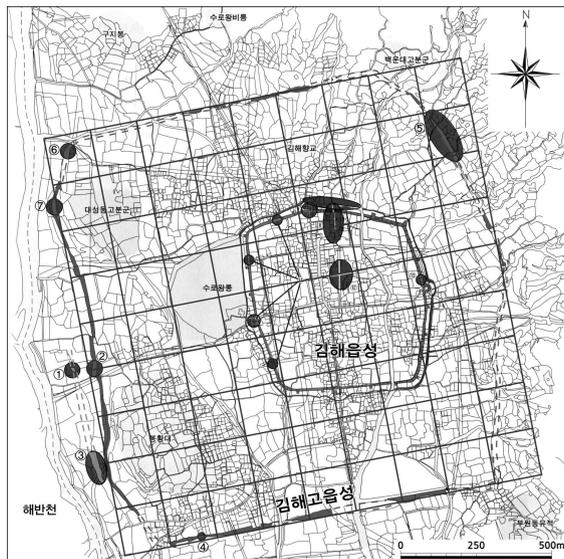
1) 금관소경

金官(金海)小京은 문무왕 20년(680)에 옛 가야영역의 중심지이자 해상교통이 용이한 김해지역에 설치되었고, 경덕왕 때 金海京으로 개칭되었다. 박태우(1987:70)는 김해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분성산(盆山) 정상부에 축조된 테피식 석축산성인 盆山城을 소경성으로 비정한 바 있다. 분산성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실시된 시·발굴조사 결과 초축 시기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로 밝혀졌다. 성 둘레가 약 929m로 매우 협소하고 해발 326.9m의 비교적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治所로서 기능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인접한 금관소경 도시 공간의 배후산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山田隆文(2008:32~35)는 분산성의 남서쪽 아래의 김해읍성 범위를 포함한 주변 평지에 소경성이 정비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분성산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구릉(현 남산공원)을 동쪽 경계로, 해반천을 서쪽 경계로 하는 지역에 한 변 약 140m를 기본으로 하는 方格地割이 지도상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관소경을 약 80m 폭의 남북대로를 중축으로 갖는 동서 8방, 남북 7방의 방형 도시구



[도 1] 金海府內地圖



[도 2] 금관소경 도시구획 복원안

조로 복원하였다.³³⁾

山田隆文가 추정한 고대 시가지의 범위는 최근 조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金海古邑城과 상당 부분이 중첩되어 있어 상호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해고읍성은 조선 전기에 축조된 석축 읍성의 외부를 외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토성으로, 「金海府 海東地圖」(18세기 중후반)나 「金海府內地圖」(1820년경, 도 1) 등의 고지도에 모서리가 동근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³⁴⁾ 고읍성의 조사 결과 世宗 16년(1434)의 김해읍성보다 앞서 축조되었고, 후대 읍성(둘레 4,683척) 자리를 포함하는 동시에 고대 시가지구획의 추정 범위와 대체로 겹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해고읍성(도 2)의 평면 형태는 서쪽과 동쪽 경계가 지형지물에 맞춰 다소 굴곡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방형을 띠고 있으며, 전체 범위는 山田隆文의 금관소경 복원안에 비해 북쪽으로 보다 확장된 양상이다. 거의 직선 형태를 이루는 고읍성의 북벽과 남벽 간 이격거리는 사벌주의 남북 규모와 동일한 약 1,405m로 파악된다.³⁵⁾ 이는 440척(156.2m) 단위구획의 9블록(坊) 거리에 해당한다. 남벽의 경우 1916년 지형도에 보이는 시가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임호산과 남산 남록을 잇는 동서축선을 통과하고 있어 주목된다.³⁶⁾

한편 서벽은 해반천에 인접한 대성동고분군과 봉황대구릉을 포함하되 다소 내만하는 구간이 있고, 동벽은 최대한 남산에 접해 있으나 분성산에서 뺀 내린 낮은 구릉지를 피해 내만하고 있다.³⁷⁾ 따라서 동서너비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최대한 돌출

33) 격자형 시가지구획의 남북중심축은 서쪽으로 약 7° 기울어졌으며, 동서 8방 가운데 남북대로의 좌우측에 위치한 구역은 동서 폭만 약 100m로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34) 「해동지도」에 「首露王時而築土城」으로 표기되어 있고, 『大東地志』와 『增補文獻備考』에는 둘레 8,683척의 흙으로 쌓은 盆城, 수로왕과 관련된 舊土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35) 김해고읍성의 남벽은 봉황동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동서문화연구원 2010, 도 2의 ④)에서 석축기초를 갖춘 토성의 내벽면 일부가 조사되었다. 남벽의 외벽면과 외황은 조사구역 남쪽에 인접한 현 가락로 23번길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벽은 북서모서리에 해당하는 가야사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내 유적(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도 2의 ⑥)에서 조사된 기단석축형 토성과 내황의 진행 방향을 미루어 볼 때, 구봉초교에서 꺾여 김해여고 뒤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남벽과 북벽은 고대 시가지 추정 범위의 남·북단을 동서로 통과한다.

36) 1916년에 측량된 1/50,000 김해지도에는 임호산 동록과 남산 남록을 잇는 동서축선이 확인된다. 그중 약 1km 가량 직선구간을 이루는, 지금의 김해아파트와 김해시정 뒤편을 동서로 연결하는 가락로 23·24번길, 김해대로 2371번길을 김해고읍성의 남성벽이 지나간다.

37) 서벽 기초시설과 외황이 조사된 대성동고분군 전시관부지(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도 2의 ⑦)와 가야인 생활 체험촌 조성부지(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 도 2의 ③)는 각각 대성동고분군과 봉황대구릉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다. 두 유적 사이의 저지대에 위치한 김해도서관 주차장부지 및 증축부지(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2008·2011, 도 2의 ②·①)에서 조사된 폭 9m의 성벽은 구획선 안쪽으로 다소 내만하고 있다. 한편 기단석축이 확인된 동벽의 북쪽 구간(도 2의 ⑤)은 남산에서 백운대고분군이 위치한 북동모서리 쪽으로 경사져 있다.

한 성벽 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북길이와 동일한 약 1,405m 범위에 포함된다. 결국 신문왕대 도시계획에 주로 사용된 한 변 156.2m(440척, 高句麗尺 기준)를 기본 단위로 한 9방×9방 규모에 고읍성이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성산과 남산, 해반천 등 외곽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삼아 평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남북축을 서쪽으로 약 11° 기울여 설계하였고, 사벌주나 남원소경과 거의 동일한 형태와 규모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김해고읍성은 금관소경의 도시 공간을 나성의 형태로 둘러싼 소경성이거나³⁸⁾, 적어도 고려시대 토성을 축성할 당시 이전부터 존속해온 격자형 도로망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형조건에 맞춰 성곽의 범위를 설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치소의 위치나 남북대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고대 구획선이 수로왕릉의 남북축과 묘역 입구를 지나도록 유기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한 금관소경의 설치 배경을 엿볼 수 있다.³⁹⁾

2) 청주(菁州)

현 경남 진주시는 문무왕 때까지 신라 下州의 최종 주치인 居列州에 속했다가, 신문왕 5년(685)에 9주의 하나인 菁州로 개편되고 757년에는 康州로 개칭되었다. 박태우(1987:35)는 靑州城을 중심으로 북쪽에 고대 시가지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로 분류하였는데, 시가지의 중심축이 서쪽으로 약 15° 기울어진 것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山田隆文(2008:19~21)는 1933년 지형도를 기초로 한 변 160m의 方格地割이 남강 북쪽의 구도심에서 확인된다 하였고, 약 80m 폭의 남북대로를 중축으로 갖는 동서 6방(약 1,040m), 남북 6방(약 960m)으로 시가지를 복원하였다. 남북중심축은 북에서 서쪽으로 약 17° 기울어져 있다.

남북대로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남원소경과 사벌주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와 같이 서벽과 동벽은 구획선에 최대한 맞추되 외곽 지형에 따라 다소 굴곡을 이루고 있다.

- 38) 동서문화연구원(2010:88~90)에 의하면 토성의 입지적 특징 및 성벽 구조, 7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각편과 보주형 꼭지, 단판으로 타날된 기와편의 출토양상, 영정주와 횡장목의 절대연대 등으로 볼 때 토성의 초축 시기가 김해소경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무너진 토성은 구간별로 개·수축하여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성벽 구간의 경우 대부분 중심연대가 고려시대 이후로 밝혀져 축성시기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39) 이현태(2006)는 김해에 소경을 설치한 문무왕 20년 즈음해 왕경의 김씨 진골귀족들과 구분되는, 지방에서 올라온 새로운 김씨라는 의미를 지닌 新金氏를 왕경으로의 이주자는 물론 계속 김해에 거주하고 있던 금관 가야왕족의 후손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봉황대와 대성동고분군이 도시공간에 포함되고, 특히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릉이 금관소경의 도시구획과 유기적으로 배치된 점에서 금관가야계를 배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440×440척을 기본단위로 한 도시계획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 진주혁신도시 예정지나 가좌동, 개양 등 남강의 남쪽 외곽에서 통일신라시대 주거지나 분묘, 생산유적이 다수 조사되고 있으나, 고대 계획도시 추정지인 진주성 북편 일대에서는 아직 관련 도시유적의 조사예가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다. 다만 추정 범위 내의 평안동유적(동서문물연구원 2008)에서 중첩된 건물지 2동이 조사되었는데, 중심축이 모두 고대 시가지구획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 해당 유적은 진주객사 터로 추정되던 곳이다. 대부분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일부 통일신라시대 기와도 수습되었다고 하여 청주의 시가지구획을 중세 이후로 계속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완산주

完山州는 신문왕 5년(685)에 설치되었고 경덕왕 16년(757)에 全州로 개칭되었다. 州城의 축성에 관한 기사는 별도로 없으나, 박태우(1987)는 완산주성이 東固山城에서 평지의 토성(古土城)⁴⁰⁾으로 연결되는 나성의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고지도에 시가지구획 흔적이 남아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동고산성 북서쪽 아래의 全州府城을 포괄하는 넓은 평지에 해당한다.

全州府 지도(1870년경)나 1910년도 측량 지도에서 전주부성의 안팎으로 격자형 가로망의 존재가 확인되고(장명수 1994), 이것이 완산주의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의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다(이경찬 2002, 山田隆文 2008). 완산주의 도시 공간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지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주천이 남쪽과 서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남동쪽에 인접한 동고산성은 신라 중대에 축조되어 완산주의 배후산성 역할을 하였고⁴¹⁾, 후백제 때는 견훤의 도읍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완산주의 도시 공간은 전주천에 접한 전주부성 주변 일대의 격자형 구획 흔적을 토대로 동서 8방, 남북 8방의 방형 구조로 복원될 수 있다. 이경찬(2002:53~54)은

40) 견훤이 쌓은 옛 토성 터가 전주부의 북쪽 5리에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古跡條, 「古土城 在府北五里有基址 甄萱所築」)고 한다. 이 토성지는 노송동의 전주동초등학교 서편 구릉지로 비정되고 있지만 현재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41) 성 내부 건물지와 남벽 구간, 집수시설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와 평기와의 출토되어 완산주 설치와 관련된 외곽의 배후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1:70~71).

남북중심축의 서측은 동서 150m×남북 155m 규모의 방형 구획, 동측은 동서 140m×남북 155m 규모의 평행사변형 구획과 남북 155m의 부정형 구획으로 구성된 불안정한 방리구획을 이룬다고 하였다. 한편 山田隆文(2008:21~23) 역시 시가지 동측의 구획 형태나 방향이 매우 비뚤어져 전체 모습이 북쪽이 넓은 사다리꼴에 가깝다고 하였다. 다만 方格地割의 구획단위가 140m×140m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경찬의 1방 규모와 차이를 나타낸다.

시가지구획의 방위는 남북축이 정북에서 서쪽으로 약 18° 기울어져 있는데⁴²⁾, 이는 외곽 경계를 이루는 산지와 하천의 방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菁州, 中原小京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시가 지형조건에 맞춰 중심축이 기울어져 있고, 西原小京처럼 가로망의 범위가 장방형으로 축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완산주의 도시구조를 밝혀줄 고고학적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전주부성 내에서 관련 유적이 단편적이거나 확인되고 있어 그 실체를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전라감영의 정청(宣化堂)이 있던 구 전북도청 자리에서 완산주와 관련된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건물지 1동과 배수로, 담장 및 기단시설, 부석시설이 확인되었고, 해당 문화층에서는 ‘官’·‘主’자명 암키와, 당초문암막새를 비롯한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출토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09:106).

또한 전주부성의 남동모서리에 위치한 慶基殿에서 석열유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수막새, 암막새와 ‘官’·‘王’자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전주대학교박물관 1998). 山田隆文은 석열 방향이 남북대로 서측의 정연한 구획 방향과 거의 일치하므로 완산주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전 동편의 史庫址에서도 통일신라시대 복판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가 동시기의 평기와편과 함께 출토되기도 하였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1:26).

이와 같이 주성의 추정 범위 내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석축담장과 기단을 갖추고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지가 확인되는 점, 특히 와당과 함께 해당 건물의 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문와가 다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고대 완산주의 중심 시가지가 큰 변화 없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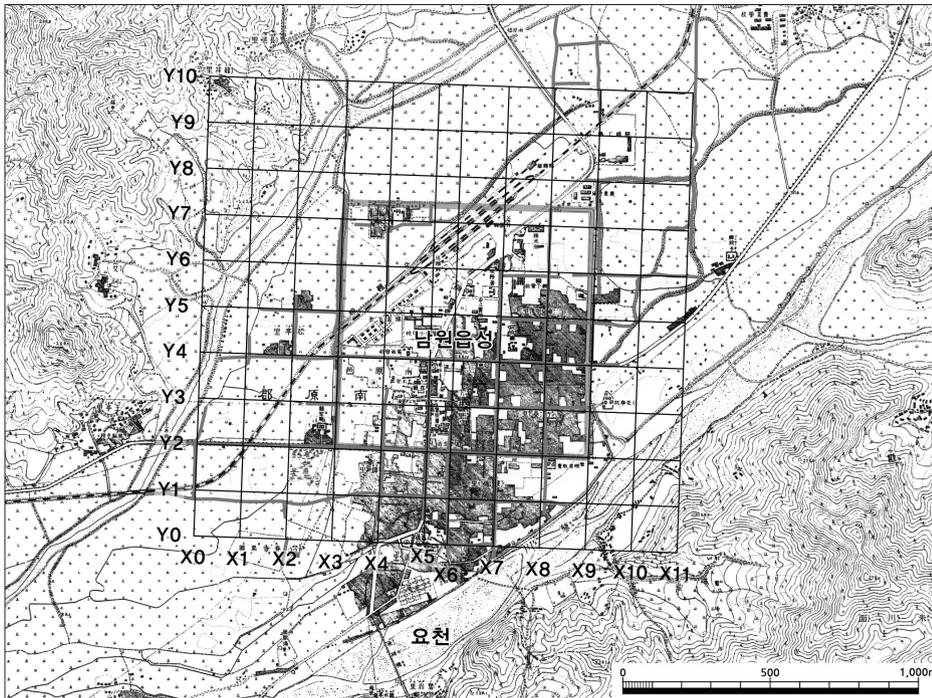
42) 시가지의 동반부는 남북구획선이 18°가 아닌 9°, 13° 등 서로 다른 편향각을 나타내고 있다(이경찬 2002). 구획의 방향과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동반부의 경우는 조영 당시의 모습이 아닌 후대에 변형된 구조로 생각된다.

4) 남원소경

南原小京은 神文王 5년(685)에 설치되고 6년 뒤 691년에는 南原城이 축성되었다. 전북 남원시는 영호남을 잇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옛 백제권역에 설치된 完山州와 武珍州를 등거리에서 지원하거나 필요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에 해당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원도호부 고적조에 唐의 劉仁軌에 의한 ‘井田遺基’⁴³⁾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부터 격자형 토지구획의 존재가 알려진 곳이다.

박태우(1987:26~29)는 남원소경을 沙伐州, 菁州와 더불어 고대 시가지 흔적이 남아 있고 包谷式 산성이 부수되어 있는 도시로 분류하였다. 1917년 지적도에 보이는 시가지구획 흔적을 토대로 한 변 160m의 정방형 단위구획(坊, 도로 포함)을 산출하였고, 시가지의 전체 범위를 남북 10방(1,600m), 동서로는 80m 폭의 남북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5방씩 배치된 10방(1,680m) 규모로 추정하였다.

한편 1938년 지형도를 기초로 연구한 山田隆文(2008:32)는 기존 복원안을 받아들여 남원소경을 남북중축대로를 갖춘 좌우대칭의 정방형 도시로 분류했다. 다만 도



[도 3] 남원소경 도시구획 복원안

4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9 全羅道 南原都護府 古跡條, 「井田遺基 唐劉仁軌爲刺史兼都督 邑內里廩取法井田畫爲九區 至今遺址尙存」

성의 궁에 해당하는 관아 위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정된 시가지의 북변 중앙에서도 남북중축대로의 연장선이 명료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구획 흔적이 다소 흐트러져 있는 소경성 추정 범위의 중앙부로 상정하였다.

소경이 설치된 남원시 중심부는 요천을 따라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산간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요천에 접하는 남동모서리나 광치천과 향교동 산지에 걸쳐 있는 북서쪽 외곽 일부는 도시 공간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고지형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동서 11방(변형구획 포함), 남북 10방 규모로 계획된 방형 구조의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적으로 소경과 관련된 도시유적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추정 범위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수습되었고⁴⁴⁾, 실체가 밝혀진 사벌주와 도시구조나 규모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남원소경 내부에 위치한 조선시대 읍성(후대 남원성)⁴⁵⁾의 발굴로 확인된 성벽이 고대 시가지구획에 부합되어 남원소경의 계획도시 존재를 뒷받침한다.

조선시대 읍성은 동벽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의 윤곽이 확인되었는데(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9,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서벽은 의총로, 남벽은 남문로의 하부에 기저부만 남아있었다. 북벽은 비석길의 서쪽 연장선 즉, 구 남원역 뒤편을 통과하여 현재 복원되어 있는 남원성으로 이어진다. 현 의총로와 남문로, 그리고 동벽 추정선인 동문로는 1938년 지형도에 보이는 고대 시가지구획선에 걸쳐 있다(도 3).⁴⁶⁾

따라서 후대 남원(읍)성의 규모를 토대로 681년에 축성된 남원소경성의 내부 구획단위를 산출해볼 수 있는데, 발굴된 북벽과 남벽의 이격거리는 약 860m이고 서벽과 동문로(추정 동벽) 역시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⁴⁷⁾ 박태우(1987:29)가 지적한 바처럼 읍성은 정방형으로 축조되었고, 한 변의 길이가 남원소경의 5개 방과 남

44) 남원성 북벽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대부완과 주름무늬병 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군산대학교박물관 2010:41), 서문사거리 일대의 서쪽 성벽구간인 하정동유적에서도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및 기와편이 일부 출토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33).

4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9 全羅道 南原都護府 城郭條, 「邑城 石築 周八千一百九十九尺 高三十三尺 內有井泉七十一」.

46) 남원읍성의 서벽(의총로)은 도 3의 X3축선, 남벽(남문로)은 Y2축선, 동벽(동문로)은 X9축선에 걸쳐 있어 서원소경의 도로망을 따라 후대 읍성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남원뿐 아니라 경주·청주·충주읍성 등 고대 시가지구획을 활용하여 축성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성벽이 헐리고 그 자리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는 많다.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남원읍성의 규모(한 변 860m, 둘레 3,440m)는 일제 때의 지적원도를 통해 복원된 규모(동벽 866m, 서벽 850m, 남벽 870m, 북벽 855m, 둘레 3,441m,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3)와 거의 일치한다.

북대로로 추정되기도 한 변형구획의 폭(80m)을 합한 것과 같다.⁴⁸⁾ 따라서 읍성의 실제 규모(한 변 약 860m)를 기준으로 남원소경의 시가지 구획단위를 복원해보면 1방은 440×440척(156.2m)임을 알 수 있다.⁴⁹⁾ 이는 사벌주의 구획단위와 동일한 것으로 주목된다.

신문왕대의 왕경이나 사벌주의 도시계획에 적용된 한 변 440척(高句麗尺 기준)을 기본단위로 하는 격자형 시가지구획은 후대 남원성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된다. 1938년 지형도를 기초로 남원소경의 범위를 추정해보면 남북 길이는 1,562m(10방)이며, 동서 너비는 10방과 중앙부의 변형구획의 폭을 더하면 1,642m로 복원된다.

5) 사벌주

沙伐州는 현 상주시내에 격자형 시가지구획 흔적이 잘 남아 있어 수도 王京에 준하는 고대 도시계획이 실시된 대표적인 지방도시로 여겨져 왔다. 최근 들어 상주 북룡동유적(嶺南文化財研究院 2005·2006·2008·2009a·2009b)을 비롯하여 상주시내에서 관련 유적의 발굴이 늘어나면서 사벌주의 坊里 규모 및 도시구조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먼저 북룡동유적을 1927년 상주 지형도(柏書房 1985)의 시가지구획 흔적과 비교해본 결과 유적의 동쪽 경계가 구획 흔적의 동쪽 끝선인[도 4]의 X9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또한 북룡동 10-4번지·230-3번지유적에서 확인된 동서도로 및 측구는 [도 4]의 Y8과 Y7의 동서축선상에 각각 위치한다. 특히 북룡동 230-3번지유적의 동서 측구는 상주 관아유적에서 조사된 왕산 북편 동서도로⁵¹⁾와

48) 읍성의 북벽은 Y7축선의 북쪽으로 약 80m 가량 돌출되어 있는데, 이는 읍성을 정방형으로 맞추기 위해 읍성의 가로 규격에 포함된 변형구획 폭만큼 세로 규격을 늘린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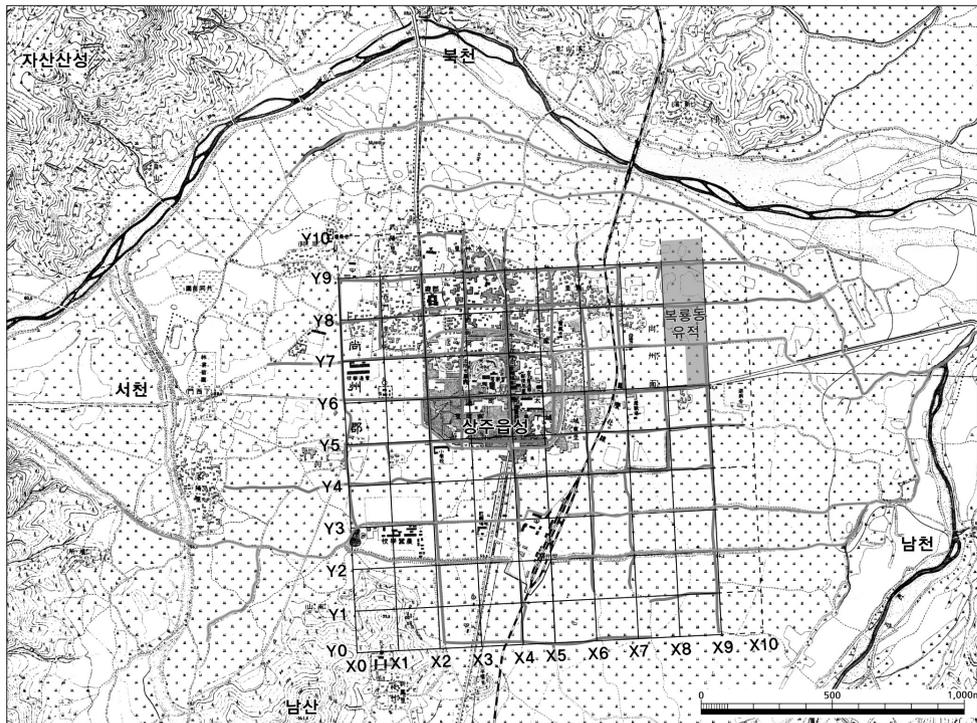
49) 이경찬(2002:53~54)은 구획단위가 구간에 따라 155m 또는 160m 등 서로 다르고, 구획 방위도 대부분은 정북 또는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하반부의 동서구획선은 시계방향으로 1.35° 편향되었다고 하였다. 이경찬이 제시한 전체 규모에서 산출한 1방의 평균값(남북 156.6m, 동서 157.5m)은 440척(156.2m)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남원소경의 시가지구획이 오랜 기간 활용되면서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구간에 따라 구획단위와 방위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0) 유적의 동쪽 경계는 상주읍성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本町(현 왕산로)에서 동쪽으로 약 740m 가량 떨어져 있다. 즉 북룡동유적과 동편 아파트단지(우방타운 및 북룡주공6단지) 사이에 있는 남북방향의 중앙로가 사벌주의 동단부 남북도로와 같은 축선을 이루고 있다.

51) 왕산 북편에서 조사된 동서도로는 사벌주의 里坊도로를 확장보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왕산 일대에 존재하는 조선시대 관아시설의 북쪽 경계로 추정하고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13a:150). 확인되는 노폭만

동일한 Y7축선에 위치하며 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복룡동유적 및 상주읍성 내부에서 조사된 구획시설은 고대 시가지구획선과 서로 합치됨을 알 수 있다.

사벌주의 최소단위구획인 1방의 크기를 대부분은 160×160m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경찬(2002)은 155×155m를 기본단위로 보고 있다.⁵²⁾ 또한 사벌주의 전체 규모에 관해서도 남북 규모는 모두 9방을 이룬다고 보았지만, 동서로는 9방 또는 10방으로 나뉘고 중앙부의 남북대로로 추정되기도 한 변형구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남북 9방을 이루는 Y9와 Y0축선의 남북거리가 약 1,405m로 계측됨에 따라 1방의 남북거리는 440척(156.2m)으로 환산된다. 이는 왕경 개편에 있어 사벌주 재설치 즈음인 2단계 도시정비에 적용된 구획단위와 동일한 것으로 주목된다.⁵³⁾



[도 4] 사벌주 도시구획 복원안

7~10m로 조사경계 밖으로 계속 이어지며 도로 남편에 측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측구가 복룡동 230-3번 지유적의 동서 측구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52) 이경찬(2002:55)은 155m 구획에 대해서 '8척1보'의 歩法을 채용한 19.4cm 전후의 10指尺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53) 7세기 후반 왕경에서는 高句麗尺(35.5cm) 5尺1步를 기준으로 한 변 400척(80보)인 방형 택지와 40척 너비의 도로부지를 합한 440×440척을 방리구획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북룡동 230-3번지유적의 북쪽 경계에서 조사된 측구(구3호)⁵⁴⁾와 북룡동 10-4번지유적(1구역)의 동서도로 남측구(구1호)의 간격은 1방의 남북거리를 의미한다. 좌표값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이격거리의 산출은 어렵지만 대체로 156.2m(440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룡동 10-4번지유적에서 5~6m 노폭의 동서도로가 확인되었는데⁵⁵⁾, 왕경에서도 40척(14.2m)씩 균등하게 획정된 도로부지 중 실제 도로는 주변시설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여 40척 범위 내에서 다양한 노폭으로 조성되거나 개축된 사실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⁵⁶⁾ 한편 북룡동 10-4번지유적의 4구역에서 남북도로로 추정되는 구상유구(7호)가 확인되었다. 비록 고려시대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남북축이 X8축선(현 북룡2길 서단부)을 지나며, 동으로 1블록 떨어진 X9(현 중앙로)와 440척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1방의 동서거리 역시 440척(156.2m)임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런데 440×440척의 격자형 구획이 도시 공간 전역에 나타나지 않고 중앙부에 폭이 좁은 종방향 구획 1열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 9방은 모두 440척의 간격을 유지하지만, 동서로는 중앙부(X4와 X5 사이)에 약 120m 폭의 변형구획을 두고 좌우에 440척 간격으로 4방씩 배치한 형태이다.⁵⁸⁾ 이와 달리 박태우(1987)와 山田隆文(2008)는 X4와 X6축선 사이에 남북대로로 추정되는 폭 80m의 1열이 있고, 그 양측에 폭 100m 구획이 좌우로 1열씩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남북대로 및 폭 100m 구획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4방씩을 맞추기 위해 북룡동유적의 동쪽에 추가로 1열(X10)을 더 설정하였다.⁵⁹⁾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발굴 결과를 토대로

54) 영남문화재연구원(2009a:336)에 의하면 북룡동 230-3번지유적의 북쪽 경계에 동서방향의 측구 3기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구상유구 3호가 통일신라시대에 먼저 축조되었다가 2호(고려), 1호(조선)가 순차적으로 개축되며 북쪽으로 다소 이동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측구(구3호) 북편의 동서도로는 후대 배수로 개축으로 인하여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달석(2007:95)은 조선시대의 구 1호가 1927년 지형도에서 확인되는 상주읍성 북동편의 해자에서 동쪽의 남천으로 흐르는 수로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신라의 시가지구획 체계가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활용되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55) 영남문화재연구원(2009b:241)에 의하면 북룡동 10-4번지유적의 1구역 구상유구 3호와 3구역 구상유구 1호는 서로 연결되는 폭 5~6m의 동서도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56) Y8축선을 지나는 구획시설은 북룡동 10-4번지유적의 동서도로(5~6m)와 남측구(2.5m 내외)를 합한 규모로 산출되어야 하며, Y7을 지나는 상주 관아유적의 1호 동서도로(현 폭 7~10m)는 비록 조선시대에 개축된 것이지만 통일신라시대 사벌주 중심부의 도로 규모를 짐작케 한다.

57) 북룡동 10-4번지유적 4구역의 동쪽에 치우쳐 있는 구상유구 2호가 X9의 남북축선상에 위치한다. 구상유구 7호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개축되었지만 기존 구획선을 유지하고 있다.

58) 동서 9방(1,370m):(156.2m×4)+120m+(156.2m×4).

59) 동서 10방(1,560m):(160m×4)+(100m+80m+100m)+(160m×4). cf. 남북대로를 제외한 10방.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벌주 도시 공간의 서쪽 경계(X0)는 남산 북쪽기슭을 동서로 흐르는 수로 방향을 통해서도 추정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소하천이 X0축선과 만나는 지점부터 Y2와 Y3축선의 도로망을 따라 동쪽으로 직선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벌주의 동쪽 경계는 구획 흔적이 X9까지 남아 있지만, 복룡동 10-4번지유적(4구역)에서 X9축선의 동편에서도 생활유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X10축선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복룡동 256번지유적에서도 구획 흔적은 없지만 Y9 북쪽으로 유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벌주는 10×10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장방형 구조의 지방도시

1) 하서주

河西州는 何瑟羅州라고도 하며 한때 北小京(639)이었다가 무열왕 5년(658)에 다시 하슬라주로 변경되었고, 경덕왕 때(757)에 溟州로 개칭되었다. 강릉지역은 6세기 초부터 전략적 거점지로 운영되었고, 9주로의 개편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이미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 있던 하서주의 주치에 통일기 지방도시계획의 도입 여부는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山田隆文(2008:28)는 남대천 북쪽의 중앙동, 옥천동 일대에 한 변 190m를 기본으로 하는 격자형 구획 흔적이 1933년 지형도에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河西州城을 4방×7방 또는 5방×8방 규모의 장방형 도시구조로 추정하였다. 구획의 방위는 주변 지형에 맞춰 북서-남동축이 북에서 약 37.5도 서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도시유적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강릉읍성 및 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일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수습되고, 관아건물지 방위가 고대 추정 구획선과 거의 일치하여 기존 方格街區를 후대에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강릉읍성 동쪽에 있었다고 전하는 濊國古城⁶⁰⁾을 재사용했는지 별개의 성지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명주동 일원에 나성 형태로 있었던 溟州城이 하서주의 주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박태우 1987:52). 강릉시 중심부로 추정되는 명주성 또는

6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古跡條, 「濊國古城 在邑城東土築 周三千四百八十四尺 今廢」

예국고성의 범위(예국고성도, 조선총독부 1916)는 아마다의 하서주 도시공간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명주성과 관련해서는 강릉읍성에서 서남서로 약 3k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 溟州山城이 통일신라기 명주의 州治城(일명 명주성)으로 추정되기도 했다(이상수 2011). 지표조사 결과 명주산성은 둘레 약 1.6km의 포곡식 석축산성이며, 추정 건물지에서 ‘溟州城’명 수막새와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평기와, 인화문계 토기편 등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물이 주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관동대학교 박물관 2009:114~118). 이는 예국고성(원삼국~삼국시대)-명주(산)성(통일신라시대~고려 중기)-강릉읍성(고려 후기~조선시대)으로의 강릉지역 치소지 이동설(김홍술 2006)과 관련이 있다.

‘溟州城’명 수막새가 다수 출토된 명주산성이 하서주에서 명주로 개칭된 8세기 중엽 이후 중요한 성곽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주성으로서 치소의 기능을 했을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9주5소경의 치소지 대부분이 시가지구획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갖추었는데, 유독 하서주(명주)만 예외일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수약주성의 도시 공간 배후에 위치한 춘천 봉의산성과 같이, 명주산성도 하서주성의 서쪽 외곽에 위치하여 영서지방으로 통하는 관문성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도시 추정지역인 중앙동, 옥천동 일대에서 치소와 관련 도시유적이 개발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대 강릉읍성의 범위가 고대 시가지구획선에 부합되는 구간이 있어 고대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⁶¹⁾

2) 수약주

首若州는 比列忽州로부터 비롯되어 수차례의 州治 변동을 겪은 뒤 최종적으로

61) 강릉읍성은 동벽 2개소와 남벽 및 남문지 1개소가 조사되었는데, 고려시대에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석축성으로 2차례 개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 2006b). 남문지(명주동 14번지)는 적십자사거리에서 강릉초교 동편으로 연결되는 명주로 구간의 남쪽 연장선에 위치한다. 또한 남성벽은 중앙시장과 성남시장 북편을 동서로 지나는 금성로 구간의 서쪽 연장선에 위치한다. 남문지를 관통하는 남북축선과 남성벽으로 연장되는 금성로의 상기 구간은 고대 시가지구획선 중의 하나이다. 북성벽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고지형도에 그 윤곽이 잘 남아 있다. 돌출된 북동모서리와 남성벽 간 거리는 최대 약 460m로 계속된다. 이는 신문왕대 지방도시의 기본적인 구획단위로 밝혀진 440척(156.2m)을 기준으로 3블록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읍성 동성벽(중앙동사부지, 성내동 11-1번지)은 고대 추정 구획선에 비해 남북축이 시계방향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한 변 440척을 기본단위로 하는 구획선이 읍성 동쪽으로 길게 확인되지만, 山田隆文가 제시한 190m 구획선과 중첩되는 양상이므로 추후 발굴 결과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문무왕 13년(673)에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경덕왕 16년(757)에 朔州로 개칭되었다. 주치를 강원도 북쪽에서 영서지방의 춘천으로 옮기고 그해 走壤城을 축조한 것은 나당전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당시는 안정적으로 도시를 조성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본격적인 수약주성의 도시계획은 9주5소경으로의 개편이 마무리 될 무렵이나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춘천지역을 신라가 점유한 것은 6세기 중엽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國原小京 추정지인 충주 탑평리유적과 같이 전략적 거점지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구획을 통한 취락 정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춘천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鳳儀山城이 주성으로 비정되거나⁶²⁾, 의암호에 접한 봉의산의 서남편 충적지대에 한 번 약 120m의 方格地割 흔적이 동서 5방×남북 8방 규모로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山田隆文 2008:28~30). 봉의산성은 춘천 분지와 북한강 수계가 한눈에 조망되는 입지적 특성을 갖췄고, 성 내부와 주변 고분군의 유물 출토 양상을 미루어 보아 수약주 주양성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 둘레가 약 1.2km로 좁고 산지에 위치하여 통일 이후에는 주성의 치소보다는 배후산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격자형 시가지구획의 추정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 반환미군기지(현 평화생태공원)와 그 서편의 경춘선 춘천정거장부지(현 춘천역 일대)에서 수약주 운영시기의 대단위 취락유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먼저 봉의산의 서남쪽에 인접한 반환미군기지는 1918년 지형도상에 토지구획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고대도시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조사 결과 미군기지의 조성으로 대부분 멸실된 상태였지만, 지장물이 없던 부지 북편(B지구 북단)을 중심으로 수혈주거지 및 건물지 등 취락유적이 삼국시대 말에서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춘선 춘천정거장부지 내 근화동유적은 동쪽에 인접한 반환미군기지 내 유적과 사실상 동일 유적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고려시대 문화층과 통일신라~철기시대 문화층이 조사구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였다. 3개 조사구역에서 모두 313기의 삼국~통일신라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수혈주거지 96기가 추정 석빙고(A구역),

62) 봉의산의 동쪽 기슭에서 통일신라시대 옥천동고분군이 확인됨에 따라 봉의산성이 수약주의 주성으로 추정되었는데(박태우 1987:68~70), 봉의산성 발굴 결과 나말여초의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6세기 후반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수혈유구, 소성유구, 구상유구 등과 함께 대단위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혈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주로 (장)방형 계통이며, 내부에 부뚜막 또는 구들시설을 갖추었다. 구들은 주로 외출고래였으며, ‘一’자형·‘ㄱ’자형·‘T’자형 구들시설이 모두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노 시설 변천 양상과 더불어 신라후기양식 토기에서 통일기의 전형적인 인화문토기까지 단절 없이 출토됨에 따라, 취락은 6세기 중후반에 형성되어 9세기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근화동유적은 남한강변의 충주 탑평리유적 및 미호천변의 청주 정봉동유적과 입지나 주거지 구조, 유물의 출토 양상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탑평리유적은 국원소경 단계의 거점 취락이며, 정봉동유적은 서원소경 서쪽 외곽에 위치한 대단위 취락으로 밝혀져 비슷한 양상을 띠는 근화동유적이 수약주와 관련된 취락임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근화동유적에서 山田隆文의 수약주성 복원안과 같은 격자형 시가지구획이 전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B구역에서 동서도로⁶³⁾가 부분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근화동 일대에 일정한 구획에 의한 취락 정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화동유적에서 확인된 동서도로는 山田隆文가 지적한 고지형도에 남아 있는 120×120m 단위의 구획 흔적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충주 탑평리유적과 청주 정봉동유적에서 확인된 한 변 약 110m의 구획단위와 유사하며 단위구획의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약주가 9주의 하나로 최종 편제된 673년 이전부터 봉의산 서남쪽 평지인 근화동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 취락이 형성되었고, 여기에는 하천변의 긴 축적대지 방향에 맞춰 구획이 이루어지되 구간별로 생략되거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당전쟁 이후 체계적인 도시 정비가 추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근화동유적에서는 주로 수혈주거지만 확인되고 동쪽 반환미군기지 내에서는 초석적심건물지도 함께 확인된 점으로 보아 수약주의 중심지는 근화동 동쪽 또는 봉의산 남쪽의 소양동 일대로 추정된다.

3) 서원소경

西原小京은 神文王 5년(685)에 설치되고 4년 뒤인 689년에는 西原京城이 축성되었다. 대부분의 고대 지방도시가 그러하듯이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청주시내에 분

63) 근화동유적의 B구역 남쪽 경계부에서 10m 폭의 도로유구가 확인되었다. 상층 도로유구는 청자편이 출토되어 고려시대로, 하층의 도로유구는 이전 시기로 추정하였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11: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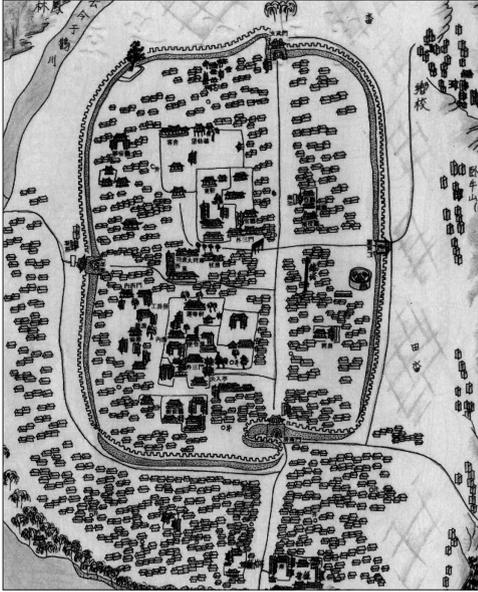
포하는 牛岩山城, 上黨山城 등을 소경성 또는 그 배후산성으로 비정하거나, 청주읍성이 위치한 우암산 서남쪽 일대를 소경의 중심지로 추정해왔다. 상당산성과 우암산성은 「沙梁部屬長池駟」이나 「啄部」명 기와가 수습되어 서원소경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다. 해당 유물이 소경의 설치시기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랑부를 비롯한 왕경인의 서원소경 이주 사실 또는 왕경의 6부 체제가 소경에 적용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원소경이 설치될 당시는 坊制라는 도시계획이 수도 왕경은 물론 지방도시에 널리 적용되던 시기로, 격자형 시가지구획이 이루어진 도시 공간 속에 궁성 및 치소가 취락과 더불어 배치되고 외곽에는 방어용 산성이 갖추어졌다. 서원소경도 이러한 정형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청주시내에서 아직 고대 도시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연구의 진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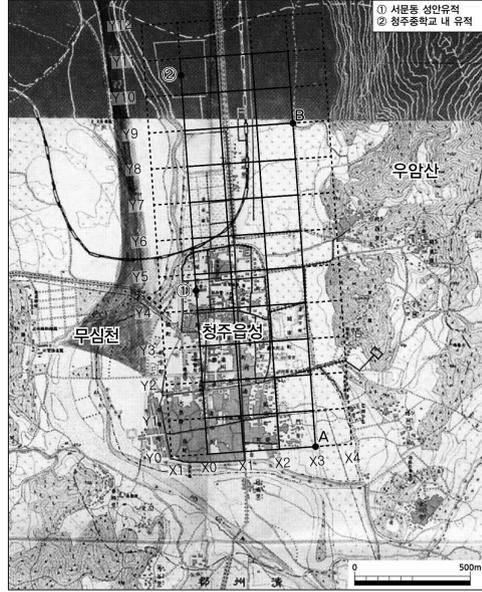
지금까지는 주로 지적도상에 구획 흔적이 보이는 우암산 서남쪽 일대가 소경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곳은 고려시대 이후 줄곧 청주의 중심부였으며 일제에 의해 훼손된 淸州邑城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1913년 지적원도에는 이미 원형을 잃었지만 읍성의 윤곽이 남아 있고, 무심천을 경계로 한 읍성 주변에서 구획의 흔적이 확인된다. 차용결(2001:211~213)은 청주읍성의 안팎으로 연계된 도로망의 분석을 통하여 읍성 내부가 일정하게 구획되었고, 읍성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방형 토성을 연상시키는 무심천의 제방을 기준으로 동서, 남북 6구역씩 구획되고 각기 132~174m의 간격을 이룬다고 보았다. 서원소경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었고 이것이 후대 읍성의 구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山田隆文(2008:36)는 무심천 우측의 남북으로 좁고 긴 평지에 한 변 약 140m를 기본으로 하는 격자형 시가지구획이 적어도 동서 5방×남북 7방 정도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구획단위(약 140m)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공간, 즉 우암산의 서쪽 기슭에서 무심천까지의 최대 거리를 6등분한 것과 같아 결국 차용결(2001)의 복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주읍성 주변의 구획 흔적이 과연 서원소경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적도상의 구획 간격이 132~174m라 하여 일정하지 않고 구획의 방향도 일부를 제하고는 경사지거나 불규칙적인데, 이는 고대 시가지구획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수정되거나 이후의 것과 중복된 결과일 수 있다.



[도 5] 청주읍성지도



[도 6] 서원소경 도시구획 복원안

山田隆文의 복원안에 따르면 시가지구획선이 읍성을 동서로 3등분하며 동벽과 서벽에 겹쳐 있는데, 실제 해당구역의 발굴 결과 서원소경의 남북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적도에 남아 있는 구획 흔적의 대부분은 읍성 조영단계 또는 그 이후 근대화 과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서원소경과 관련된 시가지구획은 극히 제한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례 윤조루에 소장된 <청주읍성지도(도 5)>는 조선시대 청주 읍치의 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읍성 중앙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청주목 동헌과 충청병영이 배치되고, 그 우측에는 남문(淸南門)과 북문(玄武門)을 잇는 남북도로가 묘사되어 있다. 이 도로는 북쪽으로 진천·증평 방면, 남쪽으로는 남석교를 건너 문의·대전 방면의 간선도로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읍성의 가로망과 달리 주축 도로가 관아시설의 남북중심축이 아닌 별도의 간선도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읍성 건설에 있어 이전부터 존속되어온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연계된 도로망을 필요에 따라 활용한 결과일 수 있다.

1918년 청주지형도(도 6)에는 읍성의 남·북문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외에도 우측으로 약 310m 정도 떨어져 서원소경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으로 긴 구획선이 남아 있다. 두 구획선(도 6의 X1, X3)은 정확히 평행하지는 않지만 高句麗尺 440척(156.2m)을 기준으로 동서로 2블록 떨어져 있다. 또한 X3축선에서 직교

흔적이 있는 A, B 두 지점이 역시 440척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9블록 거리(약 1,405m)를 유지하고 있다.⁶⁴⁾

이와 같이 지형도상 우암산의 서편 일대에 440척을 기본단위로 한 구획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데, 신문왕대 건설된 사벌주의 계획도시나 왕경의 2단계 도시구역과 동일한 구획단위를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440척 단위구획과 부합되는 도시유적이 청주시내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청주읍성 내 북서편에 위치한 서문동 성안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08)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및 다수의 담장시설과 함께 도로시설로 추정되는 석렬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건물지는 유적지(현 CGV영화관 청주서문점)에서 동쪽으로 불과 45m 떨어진 청주동헌(淸寧閣)과 관련된 관아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중복된 채 최하층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석렬유구는 유적에서 수습된 통일신라시대 유물과 더불어 서원소경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로시설로 추정된 3기의 석렬유구⁶⁵⁾는 너비가 3.1~1.8m로 사실상 축대 또는 성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려 초기에 쌓았다고 전하는 淸州城 또는 淸州羅城⁶⁶⁾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주성(919)과 청주나성(930)은 대체로 우암산의 내·외성을 증개축하거나, 나성의 경우 그 아래 후대의 청주읍성이 들어선 평지까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서문동 성안유적에서 확인된 석렬유구는 축조상태나 유물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청주나성의 성벽 기초부 또는 관련 축대 등 일종의 구획시설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남북방향의 석렬유구가 [도 6]의 X3축선에서 서쪽으로 3블록(坊) 떨어진 X0축선에 걸쳐 있어⁶⁷⁾ 고려시대의 나성 관련 구획시설이 서원소경의 추정 시가지구획선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비록 서원소경과 직접 관련된 유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통일신라시대 경질토기 10점이 출토(중원문화재연구원

64) A, B 사이를 9등분하는 지점 중 일부를 후대의 경사진 동서방향 구획선들이 통과하고 있다. 이는 고대 도시구획이 후대까지 지속되며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65) 최하층의 석렬 1호는 너비 3.1m로 축대 내측에서 해무리굽 청자편 1점이 출토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개축된 석렬 2호와 3호는 각각 너비 2.1m와 1.8m이며 「太平」과 「城」명 어골문 암키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8:56~57).

6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1 二年 秋八月 癸卯, 「以靑州首鼠順逆 訛言屢興 親幸慰撫 遂命城之」

『高麗史節要』卷1 庚寅(太祖)十三年, 「幸靑州 築羅城」

『高麗史』志7 兵志22 城堡 太祖十三年, 「築靑州羅城·連州城」

67) 청주 서문동 성안유적의 석렬유구는 X3축선에 해당하는 현재의 대성로(동단)에서 서쪽으로 약 468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서원소경의 440척(156.2m) 단위구획과 부합한다.

2008:124)됨에 따라 고려 초 청주나성이 서원소경의 도시구획에 맞춰 축조되고 이 때 소경 관련 시설이 철거되거나 개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훈련장부지 내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4)에서도 구획시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유적이 확인되었다.⁶⁸⁾ 유적 중앙부에 자갈로 노면을 다진 남북도로가 축조되었고, 도로 동편의 측구와 담장을 경계로 동쪽에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와 고려시대 건물지가 중복된 채 노출되었다. 반면에 도로의 서쪽에서는 구상유구와 동서도로 외에 생활유적은 확인되지 않아 남북도로가 도시공간의 서쪽 경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남북도로는 남쪽으로 약 910m 떨어진 서문동 성안유적의 석열유구와 동일한 남북축(도 6의 X0)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서원소경의 시가지구획선에 부합된다. 서문동 성안유적처럼 성벽의 기초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청주중학교 일대가 청주나성에 포함되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고려시대에 도로와 배수로, 담장, 건물 등이 전면 개축되면서 기존 시가지를 계속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⁶⁹⁾

청주중학교 내 유적과 서문동 성안유적은 서원소경에서 고려시대 청주성으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고, 특히 1918년 지형도에 보이는 440척 단위의 격자형 도시구획의 존재를 발굴 결과로써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도시공간의 서쪽 경계가 유료 변경 이전의 옛 무심천에 인접했음을 말해준다.⁷⁰⁾

이와 같이 신라 서원소경의 계획도시가 무심천과 우암산 사이의 비교적 좁고 긴 평지에 조성되었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 규모는 발굴 결과와 지형도상의 구획 흔적을 종합해보면 최소 3×11방을 이루고 5×12방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형 구조인 동시기의 남원소경과 사벌주의 절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유적이 무심천의 서편 일대에서 대칭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도시 중앙부를 관류하게 될 무심천이 직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곡류하는 자

68) 청주중학교 운동장 동편에 위치한 유적에서 주거지 2기, 우물 2기, 담장시설, 기단석열 3기, 도로유구, 배수로 시설, 수혈유구 13기, 주혈군 2기,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고, 통일신라~조선시대 토기 및 자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4:2).

69) 상층 도로의 30~40cm 아래에서 이전 시기의 도로유구로 추정되는 잡석다짐층이 확인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4:14). 도로가 개축되고 통일신라 주거지가 석축기단을 갖춘 건물지로 대체된 것은 고려시대 청주나성의 운영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0) 고려시대 청주성 관련 기록 중에는 수해 상황이 다수 묘사되어 있는데, 공양왕 2년(1390)의 침수 피해를 반영하는 홍수로 인한 퇴적층이 서문동 성안유적의 고려 건물지 1호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는 서원소경과 이를 계승한 청주성의 서쪽 경계가 무심천이었고, 무심천에 인접한 도시공간이 수해에 노출된 사실을 말해준다.

연하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무심천의 서쪽은 계획도시 조성에 장애가 되는 완만한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심천을 중앙에 둔 방형 구조가 아니라 도시구획은 무심천의 동편에 한정적으로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지형조건이 취약한 무심천 서편은 자연취락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산 동쪽의 북대동유적 등 통일신라시대의 개별적 주거 군락지가 이를 뒷받침해준다.⁷¹⁾ 북대동유적의 기와가마(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나 비하동유적의 토기가마(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등 통일신라시대의 요업시설이 무심천 서쪽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서원소경의 운영과 관련된 통일신라시대 불교유적 역시 우암산 및 그 주변 일대 외에도 무심천 서쪽에 다수 분포한다.⁷²⁾ 무심천의 서편 일대가 비록 시가지로 편성되지는 않았더라도 서원소경의 중심영역으로서 존속한 것이다.⁷³⁾

한편 최근에 청주시 서쪽 외곽의 미호천변에 위치한 정봉동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대규모 주거지와 도로유구가 확인되었다.⁷⁴⁾ 서원소경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외곽에서 미호천 방향에 맞춰 구획된 공간에 취락이 조성되어 있었다.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수혈주거지 중심의 취락이며, 서원소경의 도시 공간과 구획단위가 달라 소경의 확장 과정 또는 외곽지역의 취락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무진주

신문왕 6년(686)에 發羅州(나주)를 郡으로 강등하고 武珍郡(광주)을 州로 승격시켜 전남지방을 관할하는 치소로 삼았고, 경덕왕 16년(757)에 武州로 개칭하였다.

71) 북대동유적에서는 건물지와 주거지, 우물, 수혈유구 등 통일신라시대 유구 40기가 조사되었고, 청주 명암동 유적과 용담동고분군 출토품과 형태나 문양이 유사한 통일기 이후의 토기와 태선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외적기단을 갖춘 1호 건물지에서는 8엽 단판의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기도 하였다(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252~258).

72) 특히 9세기 불교유적은 무심천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원소경의 治址와 무관하지 않다(나경준 2000:54).

73) 1933년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新羅村落文書에 보이는 4개의 촌락 중 '西原京△△△村'의 위치 및 성격에 대해서 이우태(2001:245~246)는 서원경에 속한 촌으로 그 위치는 지금의 청주시이며, 성격은 특수한 촌락이 아니라 자연촌이며 동시에 행정적으로 국가에 의해 파악된 존재라고 하였다. 여기서 무심천을 경계로 동쪽 지역은 도시 공간을 이루는 반면에, 서쪽은 촌락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원경 관할의 자연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4) 청주 정봉동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굴림주, 적심 등 총 18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청동기시대의 것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에 취락유구이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3:39).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된 도로유구 7기는 대략 110m(310척)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 채 미호천과 평행한 북동-남서 방향이거나 직교하며 취락을 구획하고 있다.

무진주성은 입지 조건이 비슷한 완산주성과 같이 영산강이 흐르는 북서쪽이 개방되고 나머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내에 위치하며, 시가지를 남동에서 북서로 관류하는 광주천의 북쪽 연안에 하천 방향에 맞춰 길게 시가지구획의 흔적이 확인된다.

山田隆文(2008:24)는 중앙동, 충장동 일대에 한 변 160m를 기본으로 하는 격자형 구획 흔적이 1917년 지형도에 남아 있어 5×9방 또는 6×10방 규모의 장방형 도시구조로 무진주성을 복원하였다. 구획의 방위는 장축인 남동-북서축이 북에서 서쪽으로 약 51도나 기울었으며, 두 축이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평행사변형을 띤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이경찬(2002:53~54)은 5열×6~9행의 방리구획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장축을 이루는 5개 열 가운데 좌측에서 두 번째 열이 폭이 좁은 半區구획(폭 90~110m)을 이룬다고 하여 중축대로로 상정되는 구획이 없다고 본 山田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단위구획의 규모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山田가 구획단위를 160×160m로 획일적으로 본 것에 비해, 이경찬은 방향과 구간에 따라 한 변의 길이가 155m 또는 160m로 확인됨에 따라 평균 157×158m의 구획단위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무진주성 복원안을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거의 없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추정 범위 내에서 단편적이거나 조사되고 있다. 먼저 중앙동의 광주제일고등학교 부지(누문동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유물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의 무진도독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林永珍·黃鎬均·徐賢珠 1995).⁷⁵⁾ 한편 도시철도 금남로 공사 구간 내 유적 2개소에서도 통일신라~조선시대의 우물 6기와 원형 및 방형 석조유구가 조사되었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2).

그중 우물 4기와 석조유구 2기가 조사된 현 금남로4가역 부지는 고대 격자형 가로망 중 하나로 추정되는 금남로에 걸쳐 있고, 특히 이경찬의 半區구획 동단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유구나 坊牆과 같은 구획시설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지만 주거지역과 관련된 우물 등이 노출되었다. 조사단이 지적한 바대로 우물과 석조유구는 구획 방향과 동일한 남동-북서방향으로 열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유구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한 우물과 석조는 각기 12m에서 최대 29m 간격을 두고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로 구획된 택지 내 가옥의 배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75) 건물지와 구는 구획 방향과 같은 남동-북서방향을 이루고 있고 인화문토기와 함께 '國城'명 평기위편이 출토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보이는 무진도독고성은 광주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무진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 문화전당역 부지(구 도청 앞)에서도 우물 2기가 시가지구획 방향과 동일한 남서-북동방향을 이룬다고 하였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2). 이곳은 기존 복원안에 의하면 시가지구획 범위의 바깥쪽으로 조선시대 광주읍성이 있던 곳이다. 9주5소경의 치소지에 소재한 후대 읍성들이 대부분 고대 도시 공간의 범위 내에 위치하며 기존 방리구획의 틀에 맞춰 조성되었다. 따라서 ‘官’자명 수키와(99-1호 우물)가 출토되고 금남로4가역 부지와 규모와 구조, 배치양상이 매우 유사한 우물이 확인된 문화전당역 부지 일대까지 무진주성의 범위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무진주성으로 추정되기도 한 시가지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무등산 자락의 장원봉 북쪽에 위치한 武珍古城址는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전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평지의 무진주성 추정지에 속하는 누문동유적이거나 문화전당역 부지에서도 출토된 ‘國城’, ‘官’명 등의 명문와가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진주성의 배후산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원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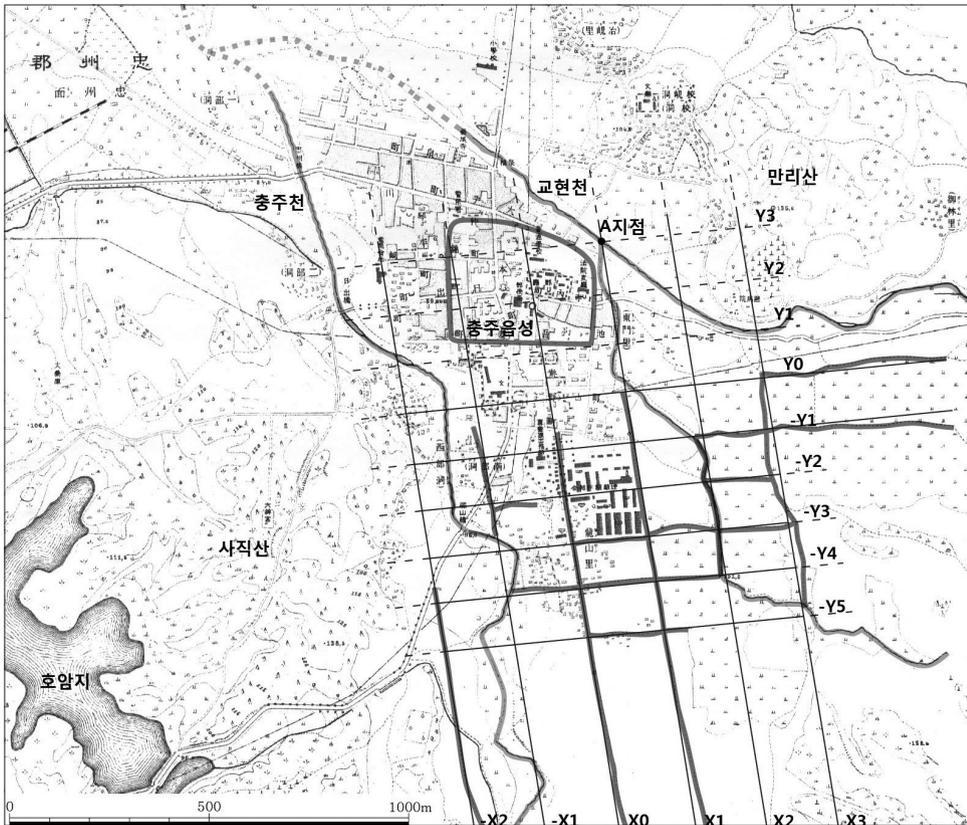
中原小京은 진흥왕 18년(557)에 설치된 國原小京을 계승하여 5소경의 중심을 이루었고, 치소는 일찍부터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된 남한강변 탐평리 일대에서 도시 부지로 적합한 충주시내로 이동되었다. 그 시기는 대체로 소경성으로 알려진 국원성의 축성시기(673) 무렵으로 보고 있지만, 충주분지 내 도시구획의 양상으로 보아 7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 그간 둘레 2,592보의 국원성을 시내에 있는 봉현성지로 인식하여 나성 형태의 소경성으로 추정하기도 했고(박태우 1987), 山田隆文(2008:38)는 충주시내에 남아 있는 고대 시가지구획 흔적을 통해 최소 6×6방 규모의 도시구조로 복원하였다.

충주분지는 남한강과 그 지류인 달천이 합류하는 서쪽을 제외하고, 대립산(남), 남산(남동), 계명산(북동), 계명산에서 서쪽으로 분기한 구룡(북)에 의해 삼면이 둘러싸여 있다. 더욱이 계명산과 남산에서 분지의 중심부로 향해 나지막한 구룡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시가지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주변 지형에 맞춰 가급적 넓은 평지를 확보하고자 시가지구획의 남북축은 북에서 서쪽으로 약 9° 가량 기울어져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고려시대 토성으로 밝혀진 傳봉현성지가 구획 흔적이 남아 있는

범위를 따라 확인되고 있어⁷⁶⁾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고읍성이 금관소경의 추정 범위와 동일하여 소경의 나성이었다가 고려시대에 개축되었거나, 후대에 고대 가로망을 활용하여 쌓은 토성으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호암동 일대의 토성유적에서 개축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929년 지형도를 검토해보면 충주시내에 잔존한 토지구획 흔적이 확인된다. [도 7]의 X0는 -X2, X1과 함께 비교적 길게 잘 남아 있는 구획선인데, 소경의 남북중축선으로 추정되는 X0의 북쪽 연장선은 충주읍성의 중앙부를 지나며 이 축선 상에 읍성 남문이 걸쳐 있다.⁷⁷⁾ X0와 평행한 남북축선들의 이격거리를 비교해보면



[도 7] 중원소경 도시구획 복원안(황인호 2013:그림10 전재)

76) 봉현성의 동쪽 경계로 추정되는 만리산 구간은 계명산에서 뻗어 나온 구룡의 끝자락이며, 남쪽 경계가 되는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 내 토성유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은 대림산의 북쪽 구룡의 끝자락이며, 서쪽 경계인 사직산 일대의 호암동토성(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은 대림산에서 호암지가 있는 사직산 쪽으로 길게 분기한 구룡에 해당한다.

77) 조선시대 읍성이 교현천 등의 영향을 받아 방형이 아닌 부정형을 이루고 중심축과 건물 좌향도 변화되었지만, 읍성의 규모가 추정 시가지구획의 동서 2방, 남북 2방의 규모와 대체로 부합한다.

160~180m로, 고구려척 5척1보를 기준으로 할 때 450척(약 160m) 또는 500척(약 178m)에 해당한다. 소경의 구획단위가 왕경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기에 편차는 있지만 동서 450척 단위로 도시구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행한 동서축선들(Y0~Y5) 간 이격거리는 120~130m로, 이는 350척(약 124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서 450척, 남북 350척의 장방형구획이 중원소경 도시계획의 기본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황인호 2013). 시가지의 남쪽 범위는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 내 토성유적 인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원소경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구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Ⅳ. 9주5소경의 도시계획

이상에서 9주5小京의 치소가 있던 14개 지방도시 중 격자형 시가지구획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일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10개소를 검토해보았다.⁷⁸⁾ 신라의 9주5소경은 일시에 정비된 것이 아니고 제반 여건도 달랐기 때문에 형태나 구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중심지는 모두 정연한 도로망을 갖춘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⁷⁹⁾ 이는 坊里制라고 하는 일종의 도시계획에 의해 王京 6部가 개편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⁸⁰⁾ 권역별로 지방도시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던 문무왕, 신문왕대는 中古期부터 시작된 왕경의 단계별 도시화가 일단락되던 시기와 맞물린

78) 한산주, 삼량주, 복원소경, 웅천주 역시 당시 유행했던 도시계획이 부분적이거나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79) 田中俊明(2013)는 副都 성격을 띠며 條坊制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五小京의 도시 형태가 王京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비교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도로유구의 검출만으로는 조방제 구획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백제 泗沘都城에 대해서도 鈴木一謙(2012:130)은 조방제와 같은 일정한 토지구획에 기반을 둔 도로유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라의 통일기 지방도시 연구에 있어 단편적 발굴 자료를 坊制에 획일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일정한 도시구획 체계를 갖추었는지 면밀한 공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0) 신라 왕경에서는 6부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坊制)에 의한 시가지 정비가 월성의 주변에서 외곽지역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구획단위가 처음에는 460×460척(163.3m)이었다가 2단계에는 도로 폭이 20척 줄어 440×440척(156.2m)으로 바뀌었고, 최종 3단계에는 북천 이북지역은 450×350척, 남천 이남지역은 380×380척이었다. 최종적으로 7세기 말~8세기에 도시정비가 이루어진 외곽지역은 하천이나 산지 등 지형적 영향으로 단위구획의 규모나 형태, 주축방향이 바뀌었다. 도시구획에 사용된 척도는 二聖山城에서 실물이 출토된 바 있는 고구려척(35.0~35.6cm)이었고, 삼국시대 말 당척이 도입된 이후로도 왕경의 방리구획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음이 발굴 결과 확인되었다(黃仁鎬 2010).

다. 따라서 9주5소경과 왕경의 도시계획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주치 및 소경의 계획도시화는 단순히 행정치소로서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구려, 백제, 가야 유민을 통합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적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었으며, 이주정책과 군단의 재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서 치소는 더 이상 일반 취락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적인 도시 공간 속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 주성과 소경성은 왕경과 비슷한 도시구조를 이루었는데, 하천을 낀 평지의 분지형 입지를 선호하였고 도시의 배후 또는 외곽의 산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표 2] 9주5소경의 유형별 도시구조 특징

방형 도시구조			장방형 도시구조		
문무왕 20년 (680)	금관소경	· 9×9방 · 440×440척 ⁸¹⁾ · 남북축 11° 편서	무열왕 5년 (658)	하서주	· 440×440척 또는 190×190m · 약 37.5° 편서
신문왕 5년 (685)	청주	· 최소 6×6방 · 440×440척(추정) · 남북축 17° 편서	문무왕 13년 (673)	수약주	· 5×8방(추정) · 120×120m · 약 30° 편동
	완산주	· 8×8방(추정) · 남북축(서반부) 18° 편서	신문왕 5년 (685)	서원소경	· 최소 3×11방 · 440×440척 · 남북축 4° 편서
	남원소경	· 동서 11방 ⁸²⁾ · 남북 10방 · 440×440척 · 남북축 2° 편동	신문왕 6년 (686)	무진주	· 최소 5×9방 · 440×440척 · 약 39° 편동
신문왕 7년 (687)	사벌주	· 9×9방 ⁸³⁾ · 440×440척 · 남북축 3° 편서	7세기 후반	중원소경	· 450×350척 · 남북축 9° 편서

그런데 모든 지방도시가 일률적인 도시 패턴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왕경의 도시구조가 단계별(시기별)로 부지의 성격 및 활용도, 지형조건 등에 따라 구획의 규모와 중심축 방향이 변모하였듯이, 9주5소경의 지방도시도 설치시기 및 지역별 입지조건, 환경에 따라 도시 형태가 다르게 확인되었다. 크게 두 가지 도시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평면 형태에 따라 방형 구조와 장방형 도시구조로 나뉘고 각 유형별로

81) 한 번 440척은 高句麗尺(약 35.5cm) 기준으로 약 156.2m이며, 여기에는 도로 규모 포함.

82) 남원소경의 동서 11방 가운데 중앙부의 1열은 약 80m 폭의 변형구획을 이룬다.

83) 동서 9방 가운데 중앙부 1열은 약 120m 폭의 변형구획을 이룬다. 사벌주는 동쪽과 북쪽으로 각각 1방씩 더 있을 가능성(10×10방)도 있다.

도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로는 금관소경, 청주, 완산주, 남원소경, 사벌주가 있고, 장방형 구조의 지방도시로는 하서주, 수약주, 서원소경, 무진주, 중원소경이 있다.

방형 구조의 도시를 山田隆文는 남북중축대로(朱雀大路)를 갖춘 좌우대칭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나머지는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남원소경과 사벌주는 추정 시가지의 중앙부에 일반적인 구획에 비해 폭이 좁은 구간이 확인된다.⁸⁴⁾ 唐의 長安城과 지방도시를 감안하면 주작대로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겠지만 신라의 경우는 다소 의문스럽다. 경주 왕경에 관해서도 한때 月城과 北宮址(성동동 殿廊址)를 잇는 120m 폭의 주작대로설이 있었지만(尹武炳 1972), 추정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⁸⁵⁾ 왕경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주작대로가 9주5소경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대대로 추정되는 폭이 좁은 변형구획의 성격을 다른 방향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작대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방도시의 전형을 이룬 방형의 평면계획이 문무왕 말년과 신문왕대에 집중적으로 구현된 사실은 의미가 있다. 문무왕 21년(681)에 경성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했고, 8년 뒤 신문왕 9년(689)에도 達句伐(현 대구시)로 천도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⁸⁶⁾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나갔던 왕경과 달리, 9주5소경은 일부 지역을 제하고는 기존 시설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경에서 이루지 못한 이상적인 도시 건설을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방형 평면계획이다.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 가운데 전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것은 금관소경, 남원소경, 사벌주이다. 금관소경은 한 변이 약 1.4km인 9×9방 규모이고, 사벌주도 동서 9방 중에 주작대로로 추정되기도 한 중앙부의 변형구획 1열이 있을 뿐 금관소경과 거의 동일하다. 남원소경은 변형구획 1열을 포함한 동서 11방, 남북 10방으로 복원되는데, 사벌주가 복룡동유적에서 확인된 바처럼 시가지 추정 범위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1방씩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남원소경의 규모와 거의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방형 구조의 도시는 전체 규모를 9×9방 또는 10~11×10방을 기본으로 하지만,

84) 시기가 다른 토지구획의 중첩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구간의 좌우로 일정한 규격의 구획 흔적이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처음부터 계획된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85) 이은석(2011:170)은 지방도시에 왕권을 표출하고자 의도적으로 중앙부 방의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보았다.

86) 『三國史記』新羅本紀7 文武王 21年, 同 新羅本紀8 神文王 9年條.

최소 6×6방인 청주와 8×8방으로 추정되는 완산주와 같이 도시를 조성할 부지의 여건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심축의 방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방형 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가지를 격자형으로 구획하는 최소구획단위, 즉 1방의 규모가 440×440척(한 변 156.2m)으로 밝혀져 당시 왕경의 2단계 도시구획에 적용된 방의 규모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왕경의 도시계획에 준하여 지방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방의 크기를 청주·남원소경·사벌주는 160×160m(박태우 1987, 山田隆文 2008), 금관소경·완산주는 140×140m(山田隆文)로 보았고, 이것이 경주의 왕경과 공통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왕경 조사연구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⁸⁷⁾ 오히려 이경찬(2002)은 비록 발굴 자료를 배제한 채 고지도에 나타난 구획 흔적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편견 없이 위치나 구간별로 매우 세밀하게 방리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한 변 155m와 160m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440척(156.2m)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방형 구조의 지방도시는 기본적으로 방형 구조의 도시에 비해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역에 설치된 특징이 있다. 하천의 흐름과 주변 산지의 형세, 평지의 형태 등 치소가 위치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의 평면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서주나 수약주처럼 9주로 최종 편입되기 전부터 주치나 소경, 또는 전략적 거점지로 개발되어 있던 지역은 지형조건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도 도시계획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장방형 도시구조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도 지형지물에 맞춰 격자형 가로망을 설치하기 쉬워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 이유로 장방형 도시구조는 방형에 비해 운영 시기의 폭이 넓었다고 생각된다.

장방형 구조의 도시는 단위구획의 규모에 따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하서주와 수약주의 1방 규모는 190×190m와 120×120m로 각각 추정되었다. 하서주는 북소경이었다가 658년에 9주로 변경되었는데, 6세기 초 하슬라주의 주치로 비정되기도 한 濊國古城이 있던 남대천 북쪽의 긴 평지에 장방형의 도시가 조성되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0×190m 단위구획의 흔적 외에도, 후대 강릉읍성의 남북규모와도 부합되는 440×440척 단위구획이 읍성 주변으로 넓게

87) 박태우가 근거로 한 윤무병(1972)의 동서 160m×남북 140m을 기초로 한 왕경 복원안, 그리고 田中俊明(1992)의 160×160m안은 문헌에 기초한 도상 복원이거나 다소 변칙적인 황룡사지 동편 왕경유적의 자료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최근의 왕경 조사연구 성과와 부합되지 않는다.

확인됨에 따라 7세기 후반에 새롭게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수약주 역시 일찍부터 전략적 거점지로 운영되던 곳인데, 봉의산성 서남편의 근화동 일대에서 120×120m 단위구획과 관련된 대단위 신라 취락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국원소경의 치소 추정지인 충주 탑평리유적(110×110m), 서원소경 서쪽 외곽의 대단위 취락인 청주 정봉동유적(110×110m), 왕경 서쪽의 모량부 추정지인 경주 모량리 도시유적(120×120m)의 구획단위와 매우 유사하다. 각 유적은 6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통일신라기로 이어지고, 모량리유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하천변의 긴 충적대지를 활용하고 있어 초기 장방형 평면계획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장방형 도시구조의 두 번째 유형은 방형 구조와 동일한 440×440척을 1방의 규모로 하는 것으로, 방형 도시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신문왕대에 설치된 서원소경과 무진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440척 단위는 평면 구조와 상관없이 7세기 후반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진주는 광주천 북쪽 연안의 최소 5×9방 규모로 추정되었지만, 그 범위를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확인된 광주읍성지 일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획단위는 이경찬(2002)이 구간별로 제시한 규모의 평균값과 유사한 440×440척으로 추정된다. 서원소경의 계획도시는 무심천과 우암산 사이의 좁고 긴 평지에 최소 3×11방, 크기는 5×12방 규모로 조성되어, 동시기에 설치된 남원소경의 절반 규모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불교유적과 개별적 주거 군락지(북대동유적)가 무심천 서쪽 일대에 분포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와 소하천으로 인해 도시 부지로 부적합한 무심천 서편은 자연취락 형태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장방형 도시구조의 세 번째 유형은 동서 450척(약 160m), 남북 350척(약 124m)의 장방형 구획을 기본단위로 하는 것으로 중원소경이 여기에 속한다. 중원소경은 진흥왕 18년(557)에 설치된 국원소경을 계승하였고, 중심지를 남한강변의 탑평리유적 일대에서 분지형 입지를 갖춘 충주시내로 옮겼다. 그 시기는 대체로 國原城이 축성된 문무왕 13년(673) 이후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충주시내에는 나성 형태의 대규모 토성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간 봉현성지로 알려져 왔다. 해당 토성에 대한 몇 차례 발굴 결과 고려 중기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충주분지를 둘러싼 토성의 범위가 중원소경의 시가지 범위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금관소경의 외곽 경계에 후대 김해고읍성이 축성된 것과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중원소경의 시가지 구획단위는 다름 아닌 왕경 정비의 최종 단계에 적용된 도시계획과 동일하다. 달구벌 천도가 좌절된 이후 7세기 말부터 8세기까지 북천 이북지역을 포함한 왕경의 외

곽지역이 새롭게 도시 공간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중원소경의 치소를 충주시내로 옮겨 계획도시를 조성한 시기는 7세기 말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안 9주5소경의 주성 및 소경성을 축성 기록에 기초하여 고대 성곽 중 하나로 비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축성 기록이 있는 곳은 6개 소이며 그중 4개소에서 규모가 확인된다.⁸⁸⁾ 중원소경에서 2,592보(약 4.6km) 규모의 국원성으로 비정된 충주시내의 봉현성지는 발굴 결과 고려시대의 토성으로 밝혀졌다. 그 외 북원소경성(1,031보), 사벌주성(1,109보), 삼량주성(1,260보)은 고구려 척(0.355cm) 5척1보로 환산하면 1.8~2.2km 내외이다. 이는 왕경의 滿月城(1,838보) 둘레의 56~68%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원소경이나 사벌주, 금관소경의 도시 규모가 왕경⁸⁹⁾의 1/2~1/3(왕경 전성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성 및 소경성의 축성 규모는 궁에 해당하는 지방관아가 위치한 치소를 두를 정도가 된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월성의 외곽에 토루 또는 경계담장의 설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처럼, 지방도시에서도 치소를 둘러싼 대형 담장 정도의 경계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월성이 왕경의 도시 공간 속에 위치하듯 지방도시의 치소가 외곽에 떨어진 산성에 위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치소성으로 추정되었던 대부분의 산성들은 지방도시의 배후에 위치한 유사시 방어시설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다만 서원소경의 우암산성이나 수약주의 봉의산성 등 도시와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평지에 접한 낮은 구릉에 위치한 경우는 치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신라의 통일기 지방도시인 9주5소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헌사 중심으로 이루

88)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尙州·神文王七年 唐垂拱三年 復置 築城 周一千一百九步, 良州·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同 卷35 雜志4 地理2,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北原京·神文王五年 築城 周一千三十一步」, 同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九年 築西原京城, 十一年 築南原城」

89) 왕경의 범위는 『三國史記』地理志에 「王都 長3,075步 廣3,018步 35里 6部」라고 하여 남북 5.4km, 동서 5.3km(고구려척 기준) 정도가 된다. 왕경의 북쪽과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황성동 일대와 나정 인근에서 각각 신라 시대 도시유적이 확인되어 문헌의 남북규모를 뒷받침한다. 동서규모는 동쪽과 서쪽 경계로 추정되는 명활산 기슭에서 서천까지의 거리와 유사하다.

어저 주치와 소경의 도시구조 및 경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坊制가 적용된 도시유적이 조금씩 확인되면서 고대 지방도시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성과 소경성의 위치 및 공간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9주5소경은 도시구조나 규모에 있어서 왕경의 축소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왕경 정비에 적용되었던 도시계획이 지방행정조직 개편 이후 지방의 중심 도시로 확대된 결과이다. 문무왕 말년과 신문왕 때 시도된 경성 개축이나 달구벌 천도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동시기의 남원소경과 사벌주 등에 이상적인 도시 건설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형 도시구조를 이루는 5개 지방도시가 모두 문무왕 말년에서 신문왕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형 구조의 지방도시에서 왕경의 2단계 도시계획(7세기 후반)의 구획단위인 440×440척(한 변 156.2m)이 적용되었음이 밝혀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벌주와 같이 기존 주치였던 사벌면 대신 왕경과 유사한 분지형 입지 조건을 갖춘 상주시내로 옮겨 신도시를 조성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소가 위치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의 평면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장방형 도시구조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도 지형지물에 맞춰 격자형 가로망을 설치하기 쉽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방형 구조에 비해 운영 시기의 폭이 넓었다. 전략적 거점지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도시 형태는 이미 6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국원소경의 추정지인 충주 탐평리유적이거나 수약주의 근화동유적이 대표적이다. 춘천 근화동유적 일대에서는 1방 120×120m를 기본으로 한 간헐적인 시가지구획이 이루어지다가 9주로 개편되면서 재정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국원소경은 110×110m 간격의 기초적인 구획시설이 확인된 남한강변의 탐평리유적 일대에서 중원소경으로 개편된 7세기 후반에 분지형 입지를 갖춘 충주시내로 치소를 옮겼다. 충주시내에서는 동서 450척, 남북 350척을 기본 구획단위로 한 장방형의 도시가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1방 450×350척 단위는 왕경이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걸쳐 외곽까지 최종적으로 도시화되던 시기의 구획단위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9주5소경의 도시계획은 왕경에서 시행된 단계별 도시계획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4.8.31 | 심사완료일 2014.9.15 | 게재확정일 2014.10.6

참고문헌

-國文-

-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春川 槿花洞遺蹟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 『春川 鳳儀山城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6a,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6b, 『江陵邑城』.
- _____, 2011, 『春川 槿花洞遺蹟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B구역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김해 가야사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伽耶人 生活 體驗村 造成敷地 內 遺蹟 I』.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周邊地域試掘調査』.
-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9, 『江陵 溟州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 _____, 2010, 『춘천 반환미군기지(캠프 페이지)부지 내 유적 표본시굴조사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남원성 북벽 일대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 金周成, 2012, 「熊津都督府의 地理的 位置와 性格」 『百濟研究』56,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金興術, 2006, 「江陵의 都市變遷史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東西文物研究院, 2008, 『晋州 平安洞遺蹟 -진주 평안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 _____, 2010, 『金海 鳳凰洞 土城址 -김해 봉황동 주택신축부지내(220-16) 유적-』.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8, 『김해도서관 증축부지내 金海古邑城』.
- _____, 2011, 『金海古邑城Ⅱ 陸』.
- _____, 2013,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試掘調査 專門家 檢討會議 資料集』.
- 羅庚峻, 2000, 「新羅西原京治址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鈴木一議, 2012, 「飛鳥時代 宮都와 百濟 泗泚期 都城의 構成要素에 관한 比較試論」 『百濟研究』56,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박달석, 2007, 「統一新羅時代 沙伐州의 里坊制 檢討」 『大東考古』創刊號, 대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1, 「統一新羅時代 沙伐州 伏龍洞 聚落의 構造와 性格」 『고대 도시 상주와 북룡동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제24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 박순발, 2013, 「百濟 都城의 始末」 『中央考古研究』第13號, 中央文化財研究院.
-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상주 북룡3지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 『2004년도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6, 『尙州 伏龍洞 397-5番地遺蹟』.
- _____, 2008, 『尙州 伏龍洞 256番地遺蹟 I-Ⅳ』.
- _____, 2009a, 『尙州 伏龍洞 230-3番地遺蹟 I-Ⅱ』.
- _____, 2009b, 『尙州 伏龍洞 10-4番地遺蹟 I-Ⅱ』.
- _____, 2013a, 『상주 왕산역사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내 尙州 官衙遺蹟』.

- _____, 2013b, 「경주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2차)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자료」.
- 예맥문화재단연구원, 2011, 「春川 槿花洞遺蹟-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C구역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1, 『全州史庫址發掘調查報告書』.
- 尹武炳, 1972,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I』, 과학기술처.
- 李京贊, 2002, 「고대 한국 지방도시 격자형 토지구획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建築歷史研究』第11卷 4號.
- 이상수, 2011, 「9州5小京과 溟州(河西州)에 대한 토론문」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 이우태, 2001,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촌락의 위치와 성격」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문화사.
- 이은석, 2011, 「상주 북룡동유적과 경주 왕경」 『고대 도시 상주와 북룡동유적』, 영남문화재단연구원 제24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 이현태, 2006, 「新羅 中代 新金氏의 登場과 그 背景」 『한국고대사연구』42호, 한국고대사학회.
- 林永珍·黃鎬均·徐賢珠, 1995, 「光州 樓門洞 統一新羅 建物址 收拾調查報告」 『湖南考古學報』2, 湖南考古學會.
- 張明洙, 1994, 「城廓發達과 都市計劃 研究-全州府城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 張俊植, 1998, 『新羅中原京研究』, 學研文化社.
- 全南大學校博物館, 1990, 『武珍古城 II』.
- _____, 2002, 『羅州 靑洞 遺蹟附-광주 도시철도 T·K-1 공구 우물지-』.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南原 下井洞 遺蹟』.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9, 『남원 의총로 개설 구간 발굴조사보고서』.
- 전북문화재단연구원, 2008, 「남원시 구도심권 전선 지중화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9, 『全羅監營』.
- _____, 2011, 『全州 東固山城』.
- 전주대학교박물관, 1998, 『전주 경기전 부속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 田中俊明, 2010, 「中原京의 諸問題」 『중원 문화재 발굴 100년-회고와 전망』, 국립충주대학교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淸州 飛下洞 계룡리슈빌아파트 新築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淸州 飛下洞遺蹟』.
- _____, 2008, 『淸州 서문동 마야복합상영관 부지내 淸州 西門洞 성안遺蹟』.
- _____, 2013, 「淸州 국도대체우회도로 (휴암-오동) 3구간 건설공사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4, 「淸주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훈련장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차용걸, 2001, 「서원소경의 위치와 구조」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문화사.
- 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11, 『충주 호암동유적-2009년 발굴조사 보고-』.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淸州 福臺洞 錦湖어울림아파트敷地內 淸州 福臺洞遺蹟』.
- _____, 2009, 『淸州 福臺洞遺蹟(II)』.
- 黃仁鎬, 2009, 「신라 王京의 計劃都市化 과정 연구」 『新羅史學報』제17호, 新羅史學會.
- _____, 2010, 「新羅 王京 整備의 基準線과 尺度」 『韓日文化財論集 II』, 국립문화재단연구소.
- _____, 2013, 「國原小京에서 中原小京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제12권 제3호, 중부고고학회.

-日文-

柏書房, 1985, 『朝鮮總督府製作 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

山田隆文, 2008, 「新羅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 -統一新羅による計劃都市の復元研究-」『考古學論攷』第31冊.

田中俊明, 2013, 「新羅都城制研究の到達点」『東アジア都城比較の試み』, 東アジア比較都城史研究會.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The Study for City Structure of Nine-states and five-regional capitals in Silla

Hwang, In-Ho(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fter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the Silla reorganized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Nine-states and five-regional capitals. The Center of state(州治, administrative office in province) and the regional capitals were constructed as urban space with planification which was similar with wards system(坊制) in capital city. Graduall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Chiso(治所, administrative office in province) was more important than military purpose, and Silla needed to parade the symbolic authority of unified country(Silla) through effective local ruling system.

The forms of city for the state and the regional capital fortress appeared different according to establishment time and regional condition. The city structure was divided into 2 forms—square and rectangular city structure-by plane shape. The rectangular city structure was subdivided into 3 division units by each period. There were Geum-guan regional capital(金官小京), Cheong state(靑州), Wansan state(完山州), Namwon regional capital(南原小京) and Sabeol state(沙伐州) in square city structure, and Haseo state(河西州), Suyak state(首若州), Seowon regional capital(西原小京), Mujin state(武珍州), Jungwon regional capital(中原小京) in rectangular city structure. The rest city couldn't be confirmed as specific aspects at all, I assume the rectangular city structure.

There was a single line that is narrow and deform section around central city, and it is presumed to be main street of the north and south in square city structure, especially Namwon regional capital(南原小京) and Sabeol state(沙伐州). The square structure of regional cities were constructed intensively during the period of the King Shin-mun(神文王), when the city management was completed as the second steps for improvement of capital city, the size of 1 ward(坊) was same with

capital city(440×440 chuck(尺), Goguryeo-chuck 5chuck 1step(步)). The whole size of basic rules were 9×9 ward(坊) or 10×10 ward(坊), but the size and the point of the compass of central axis can be changed like Cheong state(靑州) and Wansan state(完山州)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city land.

The rectangular city structure was operated during wide period, because it can be adopted by orphan lot area with high practical use of land. The rectangular structure of regional cities subdivided by division units, and city structure was progressed from small plots(about 120m on a side) to 450 x 350chuck(尺) as standard unit.

Key words : Nine-states and five-regional capitals, State fortress, Regional capital fortress, City section, Urban planning, Bangri(坊里)